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7일 새벽 12시 20분께 앤드버 소재 아이언앤 바이에 들어선 덴고 후보는 "오늘밤에는 결과를 알 수 없다" 며 승리 선언도 패배 승인도 하지 않았다

대니얼 고 승부 박빙, 투표 재개표 수순

트래한 후보 52표차 자신의 승리 선언
덴고 후보 "모든표 정확하게 확인해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연방하원 제 3지역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대니얼고 후보가 로리 트래한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벌이며 약 52표차이로 뒤져 투표 재

개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비공식 최종 집계에 따르면 덴고 후보는 총 84,872표 중 21.6%에 달하는 18,316표를 득표했으며 로리 트래한 후보는 같은 21.6%에 달하는

18,368표를 득표해 52표차로 간신히 앞선 상태다. 윌리엄 겔빈 주무장관은 재개표를 대비해 모든 지역구의 투표함을 봉인토록 명령했다. 덴고 후보는 5일 아침 이메일 성명서를 통해 "8만5천표 중 단 몇십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다. 수백표의 임시표(Provisional ballot)를 비롯 모든표가 확실하게 개표

영주권 거부 부담 WC 신청자 20% 탈퇴

Public Charge 개념 확대 추진보다 이후 탈퇴해도 시스나 이민국장 "신규법안은 이성적, 합리적" 주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변경에 따라 영주권을 받는데 장애가 될 것을 두려워한 이민자들의 유아들의 영양보조프로그램인 워(WIC;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탈퇴가 잇따르고 있다. 정치코의 9월 3일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생활보조(public charge) 개념 확대 추진 이후 합법적인 체류자와 서류미비자 모두 WIC프로그램 탈퇴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코는 뉴스보도 이후 최소 18개주의 워에 이전시들은 약 20%의 신청자들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워는 임신부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바우처와 혜택 카드를 제공함으로써 유아 분유와 음식을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미국내에 >>9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최저가
보스톤 출발
인천행항공권 \$990 부터

미처부 원주 7박8일
1인 \$750~

IACE TRAVEL 617.424.8956

Newsstar JIL Realty in Boston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대니얼 고 승부 박빙, 투표 재개표 수순, "모든 표 정확하게 확인해야"

▶▶ 1면에 이어서

후 3일 째 되는 날인 7일 오후 5시까지 500명의 서명지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덴고 후보는 "모든 표가 재개표된 이후 만약 그 때로 로리 트래헨 후보가 승리한다면 기꺼이 승복하고 그녀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이번 제 3지역구 선거는 니키 송가스(민주) 현의원이 은퇴를 선언하면서 처음에는 12명의 후보가 몰렸으며 최종 선거에는 총 10명의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4일 개표 초반, 잠깐 덴고가 앞섰지만 이후 계속 로리 트래헨 후보의 독주가 계속됐다. 한 때 4위까지 쳐졌던 덴고 후보는 밤이 깊어지면서 점차 로리 트래헨 후보를 따라잡기 시작했다. 자정을 넘기면서 두 후보는 앞치락뒤치락을 거듭했다.

자정을 바로 넘기면서 로리 트래헨 후보는 유메스 로웰 인앤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선거개표 파티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승리를 선언했지만 바로 재개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12시 20분께 앤도버 소재 아이언앤 바에 들 어선 덴고 후보는 "오늘밤에는 결과를 알 수 없다" 며 승리 선언도 패배 승인도 하지 않았다.

선거를 10일 앞둔 여론조사에서 19%를 기록하며 1위를 달렸던 덴고 후보는 당시 8%의 지지를 받아 4위를 기록했던 로리 트래헨 후보의 약진에 개표 전반에 걸쳐 경합을 벌였다.

연방의회 MA 제 3지역구 민주당 경선 결과

소속	이름	득표수	%
민주	Trahan, Lori	18,368	21.64 %
민주	Koh, Daniel	18,316	21.58 %
민주	Matias, Juana	12,914	15.22 %
민주	L'Italien, Barbara	12,890	15.19 %
민주	Gifford, Rufus	12,796	15.08 %
민주	Chandler, Alexandra	4,817	5.68 %
민주	Das, Beej	1,481	1.74 %
민주	Ballinger, Jeffrey	1,370	1.61 %
민주	Malone, Bopha	1,338	1.58 %
민주	Golder, Leonard	582	0.69 %

6%의 지지를 획득해 5위였던 라틴계 후보 주아나 마티아스 주 하원(로렌스)은 막판 저력을 보이며 12914표를 얻어 3위로 올라섰다. 바바라 이탈리아인 주 하원 후보는 12,890표를 얻어 4위, 루퍼스 기포즈 전 덴마크 대사는 12796표로 5위를 차지했다. 2위군의 표차는 아주 근소한 3지역구 표심이 완전히 갈렸음을 증명했다.

로리트래헨 후보는 선거 전날 보스톤글로벌의 사설에서 공식지지를 받은 것이 강력한 막판 상승세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보스톤글로벌은 실용적인 진보 후보인 로리 트래헨이 10년간 마틴 미헨 의원 밑에서 일하며 제 3지역구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지한다고 밝혔었다.

덴고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한달만에 80만불



9월5일 12시 30분께 지지자들에게 감사 연설을 마친 덴고 후보가 아버지 하워드 고 전 연방보건부 차관보와 감회깊은 포옹을 나누고 있다

을 넘게 모금하는 등 3백만불이 넘는 선거자금을 모아 타후보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러나 보스톤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보스톤글로벌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선거 막판에 변수로 작용했다.

한편 임시투표(Provisinal bollot)는 투표장 등록인 명단에 이름이 없거나 투표자격을 입증하지 못했을 때 임시로 투표하는 것과 부재자투표를 신청했는데 투표지를 받지 못한 경우 등의

표를 모두 합쳐 임시표라고 부른다. 임시표는 투표인의 자격을 증명해야 정식 투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로웰선(Lowell Sun)은 5일 지역 선관위원을 인용, 베일리 초등학교에서 100여장의 투표지가 임시표로 분류되어 비공식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현재 시 관계자들이 임시표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ditor@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댄 고 후보 election party 모습>



콘코드에 거주하는 쇼 양(Shaw Yang)씨과 중국계 지지자들, 이날 파티에 참가한 유일한 아시안 그룹이었다



선거후 파티에서 연설이 끝나고 지지자들과 일일히 손을 잡고 포옹하며 감사를 표하고 있는 덴고



덴고는 자정이 넘도록 자신을 기다려준 한 시니어 지지자와 포옹후 서로를 격려했다



린다 챔피언이 4일 election party에서 부모와 함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좌)남태숙(모), (가운데)린다 챔피언, (우)남영환(부)

린다 챔피언 민주당 경선서 5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린다 챔피언(44) 후보가 서퓙지검 지검장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8,077표를 얻으며 5위에 그쳤다. 한인 다문화가정 2세 출신인 린다 챔피언은 보스톤 소재 세사리아 (CESARIA) 레스토랑에서 열린 선거후 파티에서 “우리는 충분히 다른 후보들을 긴장하게 했다. 수고해 준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 고 말했다. 챔피언 후보는 “서퓙지검장 선거에 출마를 권유하는 이메일을 받고 농담인줄 알았다” 며 “검사장직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은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소수민족들이) 어떻게 대우받는가 하는 것과 권리를

보장 받는 것이었다” 고 강조했다. 린다 챔피언 후보는 개표 당일에도 선거 결과에 흔들림 없이 마무리 행사를 진행했다. 4일 열린 예비선거에서 레이철 톨린스 후보(47)는 주위 예상을 누르고 전체 89,562표의 39.29%인 35,188표를 획득해 민주당 후보로 당선됐다. 흑인인 톨린스 후보는 올 11월 총선에서 무소속 마이크 말로니와 대결을 벌이게 된다. 첫 여성 흑인 서퓙지검 검사장 후보에 오른 톨린스는 자칭 진보후보로서 MBTA 및 Massport에서 수석변호사를 지냈으며 미연방검사실 민사소송부서에서 일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문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영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SATPLUSTUTORING.COM TEL:781-398-1881

SAT Plus Fall Schedule 2018

Saturday Class Start September 8, 2018

Class	Time	
PSAT/SAT Prep	9:00 AM – 11:00 AM	11th Grade
SAT Prep	11:30 AM – 1:00 PM	10th Grade
SAT I Prep	1:30 PM – 3:00 PM	9th Grade
SAT I Prep	4:00 PM – 6:00 PM	12th Grade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영화 <안시성> 9월 21일 보스톤, 북미 동시 개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2018년 하반기 최대 기대작 전쟁 블록버스터 <안시성 THE GREAT BATTLE>이 한국과 이를 차이로 9월 21일 (금) 보스톤을 비롯 북미 주요 도시에서 동시 개봉한다.

<안시성 THE GREAT BATTLE>은 동아시아 전쟁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위대한 승리로 기록되는 안시성 전투를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 역사에서 숨겨진 고구려 명장 양만춘 장군이 50만 당나라 최정예 대군에 맞서 88일간 벌인 결사항전의 전투를 최초로 스크린에 담았다.

700년 가까이 동북 아시아를 주름잡던 대국 고구려의 기상이 안시성 전투를 통해 스크린에 그려진 것은 여러 가지 의미 크다. 사료 부족으로 고구려의 역사를 스크린을 통해 접할 기회는 좀처럼 없었기 때문이다. 양만춘의 안시성 전투는 치욕을 안은 당태종은 물론, 고구려 실세 연개소문으로부터도 배척당하고 숨겨졌었다.

김광식 감독은 영화의 포문을 여는 주필산 전투와 두 번의 공성전, 영화의 하이라이트인 토산 전투 등 전쟁 장면들을 실감나게 연출하고 양만춘과 당태종, 사물 등 주요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살리기 위해 100권의 서적을 참고하는 등 다각도로 힘썼다.

영화에 출연하는 보조 출연자만 무려 6천 500명, 전투 장면엔 동원된 말의 수만해도 650필, 시대 재현을 위해 특수 제작된 고구려와 당나라 갑옷의 수만해도 500 여벌에 달한다.

또한 <안시성>은 총 7만평 부지에 실제 높이를 구현한 11미터 수직 성벽 세트와 국내 최대 규모인 총 길이 180미터 안시성 세트를 제작한 것은 물론, '안시성 전투'의 핵심인 약 5천평 규모의 토산 세트도 CG가 아닌 고증을 통해 직접 제작하여 현장감을 극대화했다.

조인성은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 역을 맡았다. 특히 양만춘은 고구려 시대 전장을 휘어잡은 장군들이 실제로 3~40대임을 반영한 매우 현실적인 캐스팅. 태학도 수장 사물 역은 남주혁이 맡았고, '안시성의 부관' 추수지 역은 배성우가 맡아 활약한다. 이외 엄태구, 김철현, 정은채, 박성웅, 성동일, 장광, 유오성 등이 출연한다.

북미 개봉을 기념해 현재 facebook.com/HitKmovie 와 instagram.com/HitKmovie 를 통해 예고편 공유시 메이크업 제품 7종 세트 경품 이벤트가 진행 중이며, 개봉 전후 평일 무료 티켓 증정 이벤트와 관람객들을 위한 티켓 인증 전세계 무료 왕복 항공권 경품 이벤트가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될 예정이다.

영화 안시성은 9월 21일 보스톤 커먼 소재 AMC 로우스 (AMC Loews

Boston Common)

) 극장에서 개봉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H마트 모바일 앱 재단장

쿠폰, 주간세일, 매장 이벤트, 레시피 등을 내 손안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H마트가 보다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앱 (H Mart Mobile App 2.0)을 새롭게 단장했다.

새로운 H마트 모바일 앱 2.0은 식품 쇼핑뿐만 아니라 H마트 세이빙카드, 주간 세일 및, 매장 소식 등을 앱으로 간편하게 얻는 등 새로운 경험을 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카드를 스캔하는 것은 물론 손쉽게 새로운 스마트카드도 등록하고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모든 주간 세일 품목들과 e쿠폰을 앱을 스캔해 사용 가능하다.

신규 앱에서는 매장 소식과 100가지 이상의 한국, 중국, 아시아 레시피를 만날 수 있다. 애플 스토어 및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서 다운 가능하다.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추석 맞이
특별 프로모션

Event 1



홍삼정 240g 구입시,
천녹정 30g 두개 증정



Event 2

3+1 Promotion

에브리타임, 화애락본 구입시
10포 추가 증정



Event 3

천녹정 구입시
천녹정 30g 네개 증정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전화 주문 781-238-0303

FEDEX로 주문주 1-2일 안에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H M A R T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느헤미야 신학원 공개강좌 및 가을학기 시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느헤미야 인스티튜트(BNI)가 운영하는 평신도 신학원(원장 김학수 목사)이 오는 9월 8일 (토) 저녁 7시에 보스톤 한인교회 ECC홀에서 공개강좌를 열게 된다.

BNI 평신도신학원은 매년 가을학기 시작을 앞두고 다양한 신학적, 사회적 주제를 가지고 공개강좌를 열어왔는데, 올해의 주제는 “고향의 그리움으로 형성된 구약 이야기(부제: 이민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아서)”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정체성을 찾아왔으며, 수많은 갈등과 위기 속에서 이민자이자 신앙인으로서의 비전을 발견해 나갔는지를 구약 형성 이야기를 통해 알아본다. 강사 김현철 교수는 Methodist Theological School in Ohio에서 구약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공개강좌에 이어 평신도 신학원 가을학기는 9월 10일부터 시작된다. Central Campus인 보스톤 한인교회에서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한 눈에 보는 요한복음(김이근 목사)’ 과 ‘기독교 영성과 일상의 삶: 생명력 있는 삶으로의 초대(윤경문 목사)’ 강좌가 10주에 걸쳐 진행된다.

North Campus인 나사렛 사립 교회



에서는 매주 화요일 저녁 ‘출애굽기: 영원한 분향을 향한 순례자의 길(이요한 목사)’ 과 ‘우리가 믿는 것들: 사도신경을 통해 돌아보는 믿음의 길(최진용 목사)’ 가 이어져 진행된다.

BNI는 평신도 신학교육과 연합 선교를 사명으로 세워진 초교파 기관으로 지역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성 있는 강사진을 통해 평신도들에게 체계적인 기본 신학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개강좌와 가을학기 수업들을 포함한 BNI 사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사무처장 김수영 목사(bosnehins@gmail.com, 213-215-8562)에게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총영사관 앰허스트 지역 순회영사 14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총영사관은 앰허스트 지역 한인 동포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 민원담당 영사가 9월 14일 금요일 앰허스트를 방문, 순회영사업무를 진행한다.

이번 순회영사 민원처리 장소는 유매스 앰허스트 뉴먼센터(Umass Newman Center, 472 N Pleasant St, Amherst, MA)이며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까지 진행된다.

순회영사에서는 여권, 운전면허 교환, 영사확인, 가족관계등록 및 발급, 병역, 국적, 재외국민등록 등 대부분의 총영사관 민원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한다.

민원업무별 구비서류는 보스톤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usa-boston.mofa.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산악회 제퍼슨 마운틴 산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산악회는 제퍼슨 마운틴으로 정기산행을 9월 15일 토요일 떠난다.

제퍼슨 마운틴은 5716ft고도로 뉴햄프셔 지역에서 3번째로 높은 산이다. 3009ft 고도에서 시작하므로 약 2707ft만 오르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캡스리조트레일을 타는 산행 거리는 5마일이며 산행시간은 5시간이다. 난이도는 5단계 척도법 중 4수준이다. 1마일, 2마일지점에 전망대가 있고 트레일을 왕복하기 때문에

초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산행 준비물은 배낭, 등산화착용, 방풍의, 우의, 장갑, 모자, 스틱, 식수와 간편 중식 등이다. 티셔츠 및 청바지 등 면으로 된 옷은 착용을 금지한다. 회비는 20불이며 뉴햄프셔 2번출구 파크앤라이드에서 오전 7시까지 집결해야 한다.

산행 신청은 13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해야 산행이 가능하다. 신청 및 문의는 617-780-9588(김혁신)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Bruxir Crown
- 미용 치과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캔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 밤10시까지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캔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지역 최대규모의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2017년 개학식 모습. 전교생이 학교 강당에 모였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신입생 1차 소집 & 교사연수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가 2018학년 가을 학기 신입생 학급배정과 학교 소개 및 학사일정 안내를 위한 신입생 1차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8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뉴튼 소재 학교 강당에서 개최한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2부 행사로 교내 교사연수(조정현 강사-자녀 & 학생과 건강하게 소통하기 위한 지침) 및 전체교사회의를 갖는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매주 토요일 기초준비반부터 성인반까지 50개의 학급으로 나뉘어 오전교육 및 오전-오후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오전에는 한글교육과 역사교육은 물론 작문교육·음악교육·서예교육·풍물놀이·호신술·춤 등의 다양한 문화 교육

이 과정별로 진행되며, 오후에는 태권도, 미술반, 민화반, 발레반 및 서예반 수업이 특별활동으로 진행된다.

교사는 김희현 교사가 리드하는 기초준비반 & 1-2과정, 이성희 교사가 리드하는 기초3-4과정, 주민정 교사가 리드하는 초급1~3과정, 김소희 교사가 리드하는 중급1~3과정, 김영순 교사가 리드하는 고급1~3과정, 김민정 교사가 리드하는 세종1~7과정, 이정설 교사가 리드하는 작문교육1~4부, 신민영 교사가 리드하는 음악교육1~3부, 김경선 교사가 리드하는 문화교육부 그리고 담임·부담임·보조교사로 구성되어 있다.

2세 교육을 후원하기 위한 학부모회는 김효정 회장이, 이사회 윤경숙 이사장이 이끌며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개교 43주년 전통의 지역 최대 한국

학교인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9월 15일 개학한다. 병아리반(기초준비) 및 기초1-2과정의 경우 선착순으로 등록된다. 한국학교 남일 교장은 "2세들의 뿌리교육에 함께 동참할 교사를 모집한다" 며 많은 지원을 당부했다. 연락은 남일 교장(508-523-5389, korean-school.ne@gmail.com) 또는 카톡아이디 ksneusa로 할 수 있다.

1. 신입생 1차 소집일: 2018년 9월 08일(토) 오전 9.30-11(강당, 접수: 9시부터)

2. 신입생 2차 소집일: 2018년 9월 15일(토) 오전 8시 반(126호 교실)*예약 필요

3. 학교 주소: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bostonkorean@hotmail.com



이화여대 동창회 장학생 모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이화여대 보스톤 동창회는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뉴잉글랜드 지역 11학년 이상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한다.

뉴잉글랜드에 거주하는 이화여대 동창회원 자녀 또는 한인계 학생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올해 10월말 까지 지원신청서, 에세이(자기소개 및 포부), 성적증명서, 본인 또는 부모 세금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및 기타문의는 김지영 회장 ((Jiyoungjin@gmail.com, 603-

674-3415)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대동창회는 8월 25일 뉴튼의 어번데일 공원에서 바베큐파티를 갖고 선후배간의 정을 나누었다. 이대 동창회는 12월 1일 송년모임 및 총회를 통해 우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송년 모임에서 선발된 2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게 된다.

이에 앞서 11월 1일에는 토론토에서 미주 이화여대 총동창회가 개최된다. 이에 관한 문의는 김지영 회장에게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뉴잉글랜드 청소년 음악 콩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9세부터 17세 사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뉴잉글랜드 청소년 음악 콩쿨(Young Soloists of New England competition)이 개최된다.

바이올린, 비올라, 피아노, 그리고 목관악기 연주 청소년들은 10월 15일까지 비디오 레코딩을 주최측에 송부하면 된다. 주최측인 뉴잉글랜드 솔로이스츠(SONE)는 비디오 심사를 통해 우승자를 가린다.

우승자는 올해 11월 17일 저녁 7시 뉴욕 링컨센터 브루노 윌터 오디토

리움에서 연주 기회가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www.soloist-sofnewengland.com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뉴잉글랜드 솔로이스츠(Soloists of New England)는 미국 여러 곳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음악가로 구성된 챔버 앙상블 그룹이다. 이들은 연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음악을 나누고 뉴잉글랜드 지역 어린 음악인들에게도 여러 형태의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bost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한인유권자들 7명중 1명 투표 못할 수도

한인 유권자들 선거등록 여부 한달 전까지 꼭 확인
한인 비롯 소수민족 유권자들 이름 명부에서 사라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한인, 라티노, 흑인 등 수백만명의 유색 유권자들의 투표권이 올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상당수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흔한 성(Last name)인 김, 이, 박 씨들의 경우 약 7명중의 1명은 선거를 해도 '임시투표(provisional ballot)'로 분류되거나 투표를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인 유권자들은 반드시 선거 한달 전 자신의 선거유권자 등록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이처럼 유권자 권한이 제한되는 이유는 현재 21개 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간 유권자 크로스체크시스템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서로 다른 주 유권자의 이름을 비교해 1회 이상 같은 이름이 나온 경우 유권자의 투표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유권자들이 주를 옮겨 1회 이상 투표하고 있다는 투표사기에 대한 의심에서 이 같은 크로스체크를 시작했다.

성이 로드리게스, 가르시아, 잭슨, 워싱턴, 김, 파텔, 리, 박 등의 1백66만여명의 소수민족 유권자들은 특히 이 같은 크로스체크의 집중 타겟이므로 반드시 유권자 등록 여부를 살펴야 한다.

특히 올해는 435석의 미 연방 하원과 35석의 연방상원, 36명의 주지사를 뽑는 아주 중요한 중간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크로스체크에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

크로스체크(Crosscheck)는 2005년

캔사스의 론 손버흐 주무장관이 개발한 것으로 유권자의 이름과 소셜시큐리티, 생년월일을 비교해 참가한 주의 이중투표 여부를 가려주는 무료서비스였다. 캔사스, 네브라스카, 아이오와 그리고 미조리 주가 2006년에 이 제도를 실시했다.

이후 현재 공화당 주지사 후보인 크리스 코바흐는 자신의 캔사스 주무장관 임기동안 크로스체크를 2012년 15개주, 2014년에는 29개주로 확대했다. 2017년에는 미 백악관 대통령 선거투명위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었다. 심지어 매사추세츠주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크로스체크에 참여했었다.

2017년 9천8백만명의 투표기록이 크로스체크를 통해 분석됐으며 무려 7.2백만명의 이중투표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크로스체크는 단 1건의 투표사기 유죄확정권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8개주가 크로스체크의 신뢰성을 지적하며 탈퇴를 선언했다.

그럼에도 21개주에서 아직도 이 크로스체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아리조나, 네바다, 인디애나, 미조리, 웨스트버지니아, 테네시, 오하이오, 미시간 등 8개주는 이번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곳이다. 19개주는 향후 4년간 자신의 주지사를 선출하게 된다.

2015년 미국발전센터에서 '주민주의 건강'이란 보고서에서 크로스



흔한 성(Last name)인 김, 이, 박 씨들의 경우 약 7명중의 1명은 선거를 해도 '임시투표(provisional ballot)'로 분류되거나 투표를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인 유권자들은 반드시 선거 한달 전 자신의 선거유권자 등록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체크가 백인인 유권자들에 집중적으로 정조준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재단은 게이트 재단, 월마트, 포드 재단 등이 후원하고 있다.

2000년 이래 미국투표제를 연구해 온 미 언론인 그래픽 팔레스트는 "크로스체크가 현저하게 유색인종 유권자들만 과다 샘플링 함으로써 참여한 주들은 유권자들의 권리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크 스웨들런드와 함께 분석한 결과 팔레스트는 크로스체크 참여 주 중 히스패닉 6명중 1명, 아시아인 7명중 1명, 흑인 9명중 1명은 의심리스트에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분석가 스웨들런드는 "이 결과는 소수민족에 차별적"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소수민족이 많은 이유에 대한 주요 설명은 소수민족들이 워싱턴, 리, 파텔, 김 등의 성을 많이 쓰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성(라스트네임)과 이름(피스트네임)이 같은 경우 무조건 이중투표 의심자로 분류한다. 소셜번호, 미들네임 이니셜, 생년월일이 달라도 이들을 구분해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로스체크로 걸린 7백만명 중 36.4%만 2014년 투표에 참여했다. 이들에게는 유권자 등록에 없는 투표자에게 주는 "임시 투표지"가 주어졌으며, 리스트에 잘못 기재 됐음을 추후 확인해야 투표에 포함된다. 하지만 팔레스트씨는 이 같은 임시투표가 결코 투표수에 집계됐을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최소 1개월 이전에 선거등록 사무소에 전화해 자신의 유권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 래야 자신의 표가 제대로 집계될 수 있

다.

특히 이 같은 크로스체크는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지역일수록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7일 오하이오 제12연방하원 지역구 보궐선거에서 트로이 발더슨(공화)과 대니 오코너(민주)는 1,200표차이로 승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오하이오는 크로스체크에 분류된 이중투표 의심자 20만명을 유권자에서 제외했다. 현재 승자는 아직 집계되지 않은 5,048명의 부재자 투표와 3,435명의 임시투표의 집계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선거결과가 어느쪽으로 나던 최종 승자는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다시 결정된다.

(이 기사는 Ethnic Meida Service의 Mark Hedin의 기사를 재구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판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에게 드리는 기본 서비스

-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정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매사추세츠에 숨겨진 작은 박물관 가이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경 기자 = 매사추세츠에는 예술, 문화, 역사를 반영하는 수많은 박물관들이 있다. 그 중에는 보스톤 미술관이나 존 F. 케네디 대통령 도서관 및 박물관과 같이 커다란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 있는가하면 작으면서 알찬 박물관도 많이 있다. 각각 각색의 삶의 모습들을 보존하고 있는 박물관을 숨은 보물 찾듯 방문하는 일은 일상에 새로운 영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보스톤 매거진(bostonmagazine.com)이 소개한 매사추세츠에 숨겨진 11개의 작은 박물관은 다음과 같다.

스펠만 우표 및 우편 역사 박물관 (Spellman Stamps & Postal Museum)
숲이 우거진 교외에 자리잡은 스펠만 박물관은 우표를 수집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숨겨진 보석같은 곳이다. 우표와 우편 서비스의 역사에 대한 전시를 보여주며 항공우편과 남북전쟁우편 등을 다룬다. 1937년 헌텐부르크 참사에서 살아남은 전시장의 봉투 또한 볼 수 있다.

241 Wellesley St., Weston, spellmanmuseum.org.
러시아 성상 박물관 (Museum of Russian Icons)

러시아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성상 컬렉션을 보유한 곳으로 1,000점 이상의 러시아 성상 및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동방 정교회의 전통에 따라 만들어지고 사용된 그림들을 감상한 후에는 전통 러시아 차가 가득한 박물관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203 Union St., Clinton, museu-

mofrussianicons.org.
라츠 앤더슨 자동차 박물관 (Larz Anderson Auto Museum)

브루클라인에 위치한 라츠 앤더슨 자동차 박물관은 비록 규모는 매우 작지만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 컬렉션을 자랑한다. 성과 같은 건물은 예전에 라츠와 이사벨 앤더슨 부부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었다. 초기 차량에서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유럽의 빈티지 차량을 광범위하게 보유하고 있다. 방문 후 라츠 앤더슨 공원을 산책하면 언덕 꼭대기에서 내려다보이는 보스톤의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다.

15 Newton St., Brookline, larzanderson.org.
해먼드 캐슬 박물관 (Hammond Castle Museum)

글로스터의 해안을 따라 늘어선 저택 사이에 위치한 증세 풍의 이 성은 세계 여행가인 존 헤이즈 해몬드 (John Hays Hammond, Jr.)가 1929년 세운 것으로 개인 소유의 컬렉션을 전시하기 위해 지어졌다. 고대 로마 시대의 유물부터 르네상스 시대의 유물,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까지 이색적인 소장품이 가득하다. 과잉한 성이 취향에 안맞다고 해도 그림같은 바다 전망만큼은 마음에 들 것이다.

80 Hesperus Ave., Gloucester, hammondcastle.org.

허 인명구조 박물관 (Hull Lifesaving Museum)

1889년경에 세워진 포인트 앨러튼 미국인명구조스테이션(Point Allerton US Lifesaving Station)을 바탕으로

로 1978년 탄생한 박물관으로 보스톤 항구의 해양 유산을 품고 있다. 전시회와 컬렉션 외에도 로잉 수업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내내 제공한다.

1117 Nantasket Ave., Hull, lifesavingmuseum.org.

뉴잉글랜드 퀼트 박물관 (New England Quilt Museum)

미국에서 두번째로 오래된 퀼트 박물관으로 로웰의 역사적인 섬유공장 건물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1987년에 설립되었으며 골동품 및 현대식 퀼트를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 내에 도서관도 있어 섬유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다.

18 Shattuck St., Lowell, nequiltmuseum.org.

프랑스 케이블 방송국 박물관 (French Cable Station Museum)

케이프 코드에 위치한 이 박물관은 한 때 프랑스에서 올리언스까지 달렸던 전신 케이블의 종착점이 되었다. “르 디렉트” (Le Direct)라고 불리웠던 3,200마일 길이의 케이블은 1898년 설치되어 1959년까지 대서양을 연결하는 통신에 사용되었다. 과거의 이 방송국은 오늘날 골동품 가젯을 전시하고 있다. 90분동안 진행되는 가이드 투어에 참여하면 방송국의 감독실, 시험실, 수리실 및 관제실을 둘러볼 수 있다.

41 South Orleans Rd., Orleans, frenchcablestationmuseum.org.

크레인 제지 박물관 (Crane Museum of Papermaking)



브랜디즈 대학 내에 있는 로즈 아트 뮤지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제지 회사는 매사추세츠에서 설립되었다. 1801년 문을 연 크레인 & Co. (Crane & Co.)는 1879년 재활용 헝겊으로 종이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여 돈을 벌기 시작했으며 이 방법은 현재에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 최초의 공장 단지의 마지막 남은 건물에 세워진 박물관에서는 제지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40 Pioneer St., Dalton, berkshires.org.

로즈 아트 뮤지엄 (Rose Art Museum)
브랜디즈 대학의 월섬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는 미술관으로 세련되고 초현대적인 건물이 인상적이다. 20세기와 21세기 예술을 다루며 파블로 피카소, 윌프레도 램, 루이스 네벨슨의 작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415 South St., Waltham, brandeis.edu/rose.

제2차 세계 대전 뮤지엄 (International Museum of World War II)

내타에 위치한 이 박물관은 역사 문서 감정이 겸 딜러인 케네트 렌델 (Kenneth Rendell)이 세운 것으로 렌델은 사람들에게 “제 2차 세계 대전 시대와의 일종의 직접적인 접촉을 제공” 하는 것이 박물관의 목적이라고 말한다. 박물관은 7,000여개의 전시품을 비롯하여 500,000여개의 문서들을 보유하고 있다.

8 Mercer Rd., Natick, museumof-worldwarii.org.

셸번 폴스 트롤리 뮤지엄 (Shelburne Falls Trolley Museum)

1896년에 셸번 폴스에서 운행되었던 트롤리가 복원되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내 가장 오랜기간 운행하고 있는 트롤리 중의 하나이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이용 가능하다.

14 Depot St., Shelburne Falls, sftm.org.

sun@bostonkorea.com

마음대로 골라본다

\$14⁹⁹

WiFi 내장 Compact size Setup Box \$55

Plus 상품
방송 3사

\$14⁹⁹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⁹⁹

V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⁹⁹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KBS2 TV /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옥야방송 / CBS(가톨릭방송) / ETN / 버라이어티 / KTV / 우리방송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샬롬치과

SHALOM DENTISTRY

일반진료 응급치료

보험: Delta, BCBS, MetLife, Cigna, Aetna, Guardian, Altus Dental

원장: 김진구

영업 시간
화: 오전 8시-오후 5시
수: 오전 8시-오후 6시
목: 오전 8시-오후 5시
금: 오전 8시-오후 12시

978.263.4592

www.shalomdentistry.com
smile@shalomdentistry.com

418 MASSACHUSETTS AVE. ACTON, MA 01720

영주권 거부 부담 WIC 신청자 20% 탈퇴

▶▶1면에 이어서

서 탄생한 신생아들의 거의 절반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의료관계자는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해 많은 미 시민권자 신생아들이 저체중 등의 문제에 당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워는 대부분의 혜택이 미 시민권자 영유아 또는 어린이들에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정치적인 논란이 적은 프로그램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신부와 아이의 좋은 영양 공급이 추후 메디케이드의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 미국내 민주당, 공화당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1988년 USDA의 조사에 따르면 산모와 신생아에게 60일동안 1불 투자에 추후 \$1.77에서 \$3.13의 메디케이드 비용 절감을 유발한다고 조사됐다.

캔사스 로저 마셜 공화당 의원은 워 프로그램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의회 출마전 30여년동안 산부인과 의사였던 그는 “임산부의 영양이 미숙아 출산을 줄이고 건강한 신생아를 낳게 한다” 고 밝혔다.

그럼에도 백악관은 그동안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텃밭인 지역의 반 이민 정서를 이용한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이민정책입안을 추진해왔다. 이 정책은 “생활보조 (public charge)” 의 정의를 대폭 확장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민국은 생활보조를 받은 이민자들은 추후 영주권자가 된 이후 미국 정부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었다.

과거 부시행정부 산하의 이민국은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오바마케어, 헤드스타트, 주택보조인 어포더블하우징 등 현금으로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는 혜택들은 “생활보조(public charge)”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변경에 따라 영주권을 받는데 장애가 될 것을 두려워한 이민자들의 유아들의 영양보조프로그램인 워(WIC: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프로그램 탈퇴가 잇따르고 있다

가 아니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확장시켜 모든 정부혜택을 받은 경우에 적용함으로써 추후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확장된 생활보조의 개념은 이민신청자 가족 전체에 적용된다. 과거에는 신청자에게만 한정되었던 것이 새로운 이민정책에 따르면 시민권자인 자녀가 메디케이드, 헤드스타트 워 등에 가입한 경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프랜시스 시스나 이민국장은 9월초 미프레스클럽에서 “이번 신규이민정책의 목표는 이민자수 축소나 악의적인 가족이민 폐쇄가 목표가 아니다” 라고 밝혔다. 시스나 국장은 현재 백악관이 작업하고 있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 이며 전면적이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변경이 압박한 상황에서 워 프로그램에는 신청 중단을 원하는 전화가 늘고 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일부 이민 변호사들은 아예 이 같은 정부혜택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기도 하다.

한 워 관계자는 조만간 정부 정책이

명확하게 나와야 문의자들에게 답을 해 줄 수 있으며 지금 상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안을 내놓기가 힘들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워 가입자 수는 트럼프 취임했을 때 7백 40만이었던 것이 올해 5월에는 6백 80만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워는 그동안 경제향상과 출산율 저하 등으로 계속 감소 추세였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요인은 트럼프의 이민정책일 것으로 추정했다.

행정부는 아직까지 이민정책을 입안 중에 있지만 트럼프 외교부 관료들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무부는 영사 및 대사관에서 미 입국자들 중 향후 워 또는 건강보험 프로그램 사용 가능여부를 비자발급시 검토토록 지시했다.

이민 옹호단체들은 확대된 생활보조 (Public Charge) 법이 최종화되면 각종 소송이 줄어들 것 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워를 기피함으로써 충분한 손상이 가해졌다고 보고 있다.

뉴욕시의 공중보건대책의 헤네시 씨는 “어떻게든 우리 사회가 이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hsb@bostonkorea.com

부모집에 얹혀사는 '캥거루족' 성인 자녀 한국은 물론, 미국 캐나다에서 급증

(토론토 = 보스톤코리아) 김정남 기자 = 최근 모국의 서울 등에서 집값이 폭등, 20대 후반의 성인 자녀들이 집을 얻지 못해 부모집에 동거하는 이른바 '캥거루족' 이 늘고 있으며 미국 과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경제전문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미국 통계청 자료를 인용, “학자금 대출, 집값 부담 등 때문에 부모와 함께 사는 25세-34세의 성인 자녀 비중이 지난해 16%로 치솟았다” 고 보도했다.

8%에 불과했던 1970년대보다 무려 갑절이 넘는 폭증한 신기록이다.

부모 집에 눌러 사는 '캥거루족' 성인 자녀 비중의 매년 상승세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 “미국 대학들의 학비가 너무 비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학자금 빚을 졸업후 직장서 받는 봉급의 대부분을 빚 갚는데

쓰기 때문에 수년간 주택구입 여력이 희박해 부모집에 얹혀 산다” 고 지적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 캐나다에서도 다를 바가 없는 실정이다.

캐나다 굴지의 부동산 회사 로열 르페이지 (Royal LePage)는 최근 보고서 통해 “54-72세 사이의 베이비부머 세대 가운데 23%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성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고 밝혔다.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 중 4분의 1 정도가 집값 급등으로 재정적 여유가 없는 성인 자녀를 여전히 데리고 사는 셈이다.

특히 캐나다에서 집값이 가장 높은 밴쿠버가 소재한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에선 35세가 넘어서도 자녀가 동거하게 될 것으로 보는 비율이 무려 24%에 달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뉴햄프셔 해튼비치 호텔 폐렴균 오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햄프셔 보건국은 햄튼비치 소재 한 호텔내 수도시스템에서 치명적인 박테리아 균을 발견하고 즉각 제거명령을 발부했다.

햄튼비치의 샌즈리조트(Sands Resort)에서 7월 말부터 8월초까지 숙박했던 투숙객 중 총 14명이 폐렴을 유발하는 박테리아에 의한 레이오네어병 (Legionnaires' disease) 으로 확진됐으며 이중 1명이 사망했다.

뉴햄프셔 보건국은 핫팁 스파를

비롯한 호텔의 수도시스템 곳곳에서 레이오넬라 박테리아가 서식함을 발견하고 이를 모든 투숙객들에게 통지할 것과 즉각 제거 및 복구작업을 실시할 것을 9월 2일 요구했다.

레이오넬라균은 폐렴 유발성 박테리아로 오염된 물방울이나 수증기 입자를 흡입하는 경우 감염된다.

뉴햄프셔 보건국은 지난달 25일 4명의 뉴햄프셔 주민이 이 균에 감염된 것을 시작으로 추가 감염여부의 조사에 나섰다.

hsb@bsotonkorea.com

로웰지역 두번째 좋은 한인 치과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보톡스 시술합니다”

보톡스 무료 상담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메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탐 브래디 지칭 GOAT 매리엄 웹스터 사전에 등재

헝가리는 배가 너무 고파 화가날때 매리엄 웹스터 신규단어 800개 등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전 출판사이자 가장 권위 있는 사전으로 유명한 매리엄 웹스터(Merriam-Webster.com)에서 GOAT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다.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의 쿼터백인 탐 브래디의 팬이라면, 이제 GOAT라는 단어를 마음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goat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염소를 뜻하지만, 대문자로 GOAT라고 쓸 경우에는 “the greatest of all time” 을 줄여서 쓴 말이 된다.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를 언급할 때 사용되는 말이다. 어떤 분야에서건 사용할 수 있지만, 주로 탐 브래디를 언급할 때 GOAT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다. 스피링필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매리엄 웹스터는 지난 4일, 800개 이상의 새로운 단어들을 자사의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새 단어들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

로 등록되었다고 매리엄 웹스터는 설명했다. 매리엄 웹스터는 성명서에서 “새 단어와 그에 대한 정의는 어휘가 어떻게 진화하고 확장되는 지를 보여 준다. 전문 기술 분야에서 사용하는 단어에서부터 일상 대화에서 쓰이는 단어까지 다양한 단어가 포함되었다” 고 밝혔다. 새로 추가된 단어들을 살펴보면

“hangry” 라는 단어가 있다. 굶어 죽을 것 같이 배가 고파서 화가나 있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다. “medical marijuana” 와 “CBD” 라는 단어도 추가 되었다. 매사추세츠 주를 포함하여 많은 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사용 빈도가 크게 증가한 단어다. 마리화나 관련 비즈니스가 많이 언급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CBD라는 단어는 사람을 흥분 시키는 성분을 제거한 대마초를 의미한다. 점점 더 많은 주에서 CBD를 허용하는 추세에 있다. jsi@bostonkorea.com



MA주 출근 시간 미국서 5번째 길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만약 직장으로 출근하는 시간이 이전보다 길게 느껴진다면, 기분만 그런 것이 아니다. 실제로 매사추세츠 주민들의 출근 시간이 길어졌다. 연방 센서스에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자가용, 전철, 혹은 버스를 이용하여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출근하는 시간은 6년 전보다 42초가 길어졌다. 또한 센서스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민들의 평균 출근 시간은 미국에서 5번째로 길다. 하루에 42초면 잠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년을 기준으로

로 본다면 6시간이 넘는 시간이다. 트리플에이(AAA)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는 낮은 실업률 덕분에 2010년에 비해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사람은 9만 7천여명,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사람은 4만 9천여명이 늘었다. 매사추세츠의 주도인 보스톤의 경우 미국에서 7번째로 교통정체가 심한 도시이다. 보스톤 주민들은 매년 60시간 이상을 교통 정체 속에서 보내고 있다고 트리플에이는 밝혔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자,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축 개업 25주년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재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레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보스톤 경찰 아들 테러 계획 혐의 징역 20년

대학 캠퍼스에서 소총과 폭탄 사용 계획 실제로 체포 전 총기4정, 압력 밥솥 구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톤 경찰서 고위 간부의 아들이 테러를 계획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청년이 IS(Islamic State)의 “헌신적인 전사”로 대학 캠퍼스에서 살상용 소총과 폭탄을 이용해 미국인들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슬람 이름인 알리 알 암리키로도 불리는 알렉산더 치콜로(26세)는 지난 5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이미 인정했다. 치콜로는 3년 전에 아버지의 신고로 FBI에 체포되었다.



테러를 계획한 혐의로 20년형을 선고 받은 알렉산더 치콜로

변호사는 치콜로가 정신 장애와 약물 중독 때문에 실제로 테러 계획을 실행에 옮길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치콜로가 IS의 충실한 지지자로 미국에 최대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FBI 보스톤 지부의 행크 쇼 특별 요원은 성명을 통해 “IS의 전사인 알렉산더 치콜로는 소총과 압력 밥솥을 이용한 사제 폭탄으로 무고한 미국인들을 죽이고 싶어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밝혔다.

치콜로는 2015년 7월에 4정의 총을 입수한 직후 체포되었다. 치콜로에게 주문을 받고 총을 건넨 사람은 FBI에 협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치콜로는 외국 테러 단체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총기를 사용해 대량 살상을 시도하려 한 혐의를 재판 전에 인정했다.

또한 치콜로는 2013년 보스톤 마라톤 폭탄 테러에서 사용된 것과 비슷한 형태의 압력 밥솥 폭탄을 이용할 계획이었다. FBI에게 체포되기 얼마 전 치콜로는 폭탄 제조를 위해 압력 밥솥을 구입했다.

치콜로는 체포 전에 페이스북에 보스톤 폭탄 테러범의 사진을 올리며 “자하르에게 정의를, 희망을 잃지 않길”이라고 적었다. 지인들과의 통화에서 폭력적인 언어를 구사하고, 페이스북에는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을 찬양하는 글들을 올렸다.

치콜로의 아버지는 아들의 체포와 관련하여 공개적인 언급을 한 적이 없으며, 어머니는 지난해 NPR과의 인터뷰에서 “아주 동정심이 많은 아이라 파괴한 마리 못 죽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린필드 주민들 갈색 수돗물에 분노 발동

당장 해결책 없어, 고압 세척도 주민비협조로 불발 새로운 정수시설, 주민동의 후 5백만불 공사해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동북쪽 교외에 위치한 린필드(Lynnfield, MA) 주민들이 계속되는 갈색 수돗물에 분노하고 있다. 그럼에도 단시간내에는 뚜렷한 해결방법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5년전 린필드 웨스트 태플로드에 6베드 룬 집을 장만한 리사 로페즈씨는 “물을 마실 수도 없고 빨래를 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수도관계자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확인하는 경우도 없고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며 분노했다.

린필드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 관리하는 린필드 지역수도센터 (Lynnfield Center Water District's, 이하LCWD)의 9월 3일 청문회에는 수많은 주민들이 가득 메웠다. 그들은 왜 수돗물이 갈색이며 심지어는 검기까지 해서 마실 수도 없고 빨래조차도 못하게 됐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 했다.

특히 애플힐 레인, 로웰, 메인스트리트, 코틀랜드레인의 주민들은 수년째 이처럼 색깔이 변한 물로 생활을 하고 있다. 주민들은 LCWD가 전혀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접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LCWD는 1939년 의회에 의해 설립돼 린필드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두 기구 중의 하나로 3명의 커미셔너로 구성되어 있다. LCWD는 린필드의 북서쪽 3분의 2에 달하는 약 2600 가구, 사업체 공공빌딩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기구다.

이날 청문회에서 콘스탄스 레세스 의장은 주민들에게 단기적으로 각 가정에게 \$200까지 보조해 워터필터를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이것으로 단기적으로 문제를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약 5백만불

에 달하는 정수처리시설을 건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주민들 절반 이상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레세스 의장은 “우리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리베이트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펄쩍 뛰었다. 필터를 사용한다면 이 필터를 1주일에 한번정도 갈아야 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주민들은 수돗물 요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대폭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레세스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케네스 버햄 수도감독관은 수돗물이 색깔이 변한 이유는 아이언과 마그네슘의 총전물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돗물 샘플을 보내 주정부에서 실험한 결과, 이 수돗물은 연방안전수도법의 기준에 부합하며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고의 해법은 새로운 정수처리시설이며 주민 동의와 건설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선택은 매사추세츠수자원공사에 가입하는 것이다. MWRA는 주내 그레이터 보스톤지역 61개타운 3백10만명의 주민 그리고 5,500산업단지에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곳에 가입키 위해서는 약 2천만달러가 들기 때문에 린필드 지자체로서는 선택하기 쉽지 않다.

버햄은 현재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임시방책은 고압으로 수도관을 씻어 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주민들이 옥외 수도사용 금지정책을 위반하고 있어서 충분한 수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매주 \$8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걷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깊은 신음만 삼키고 있을 뿐이었다. hsb@bostonkorea.com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thepeterginateam@gmail.com



뉴욕타임스 익명칼럼 저자 트럼프 정부 내 누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행정부의 난맥상을 비판하는 익명의 "정부 고위 당국자"의 칼럼을 5일 온라인 판에 게재하면서 미 언론들은 이 당국자의 신원에 대한 갖가지 추측 기사를 다루어 보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반역(Treason)"이라며 해당 칼럼을 기고한 고위 당국자가 실재한다면 그 신원을 공개할 것을 NYT에 요구했으나, NYT 측은 "칼럼 저자의 신원을 공개할 경우 그의 거취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NYT 측은 자신들도 칼럼을 익명으로 실는 건 "드문 일"이라면서도 독자들에게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익명으로 칼럼을 실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NYT가 이날 보도한 "난 트럼프 행정부 내 저항세력의 일원"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익명의 이 당국자는 "난 대통령(트럼프)을 위해 일하지만, 나와 같이하는 동료들과 함께 트럼프가 퇴임할 때까지 트럼프의 오도된 충동을 반대해 우리의 민주적 행정부를 유지하는데 모든 일을 다하기로 맹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칼럼 과문에 대해 "익명의 관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한 내용 자체는 충격적"이라면서도 "사실 정부 관료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고 전했다.

시사지 '더위크'에 따르면 공보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무를 담당하는 미 정부 관계자 중 한 명은 이번 익명 칼럼의 주인공이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데 지친 켈리언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이나 어쩌면 그 남편 조지 콘웨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콘웨이 고문의 남편 조지의 경우 작년 6월 영국 런던에서 수니파 극단주의 단체 이슬람국가(IS) 추종자들에 의한 테러가 발생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반(反)이민' 행정명령 서명을 옹호하는 트윗을 연이어 올리자 이를 작심 비판한 적이 있다.

또 시사지 '위클리스턴더드'의 존 맥코맥 선임기자가 트위터 이용자를 상대로 진행 중인 '누가 익명 칼럼을 썼을까' 여론조사엔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 존 켈리대통령 비서실장 등 4명이 선택지로 올라 있다.

이외에도 워싱턴포스트(WP)의 이산 타투어 기사는 해당 칼럼에 묘사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와의 관계 등에 착안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저자 후보군'에 포함시켰다.

CNN은 행정부내 13명을 추측했다. 백악관 자문변호사 돈 맥칸, 올가을 직을 그만두는 그는 트럼프와 여러 차례 부딪혔고 로버트 뮐러 특검에 적극 협조기도 했다. 국가정보원장 돈 코츠, 킬리언 콘웨이 고문과 남편 조지, 존 켈리 비서실장, 크리스첸 넬슨 국토안보부 장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피오나 힐 전 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니키 힐리, 유엔대사, 제러드 쿠셔와 이방카(자방카), 멜리니아 트럼프 영부인 등을 꼽았다.

그러나 '더위크'는 "NYT가 칼럼 저자의 익명을 보호하겠다고 맹세한 만큼 저자가 사임하거나 스스로 신원을 공개하기 전까진 추측만이 무성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내 고위직 중에서 이번 기고글 공식적으로 부인한 사람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덴 코츠 국가정보원장,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크리스첸 넬슨 국토부 장관 등 4명이다.

hsb@bostonkorea.com

The New York Times

Opinion

I Am Part of the Resistance Inside the Trump Administration

I work for the president but like-minded colleagues and I have vowed to thwart parts of his agenda and his worst inclinations.

뉴욕타임스(NYT) 갈무리

트럼프, 반역? 익명의 NYT 필자 정부 넘겨라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자신의 무도덕성(amorality)과 총동적 언행 때문에 행정부 관료들이 이에 저항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와 관련해 "반역(Treason)"? 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반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익명의 관료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단지 다른 가짜 소식통을 가진 NYT의 실패인가? 만약 익명의 사람이 진짜 존재한다면 NYT는 국가 안보를 위해 그를 즉시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NYT에는 트럼프 행정부 내 고위 관료임을 자처하는 익명의 필자가 '나는 트럼프 행정부내에 있는 레지스탕스(저항세력) 중 한 사람'이란 제목의 기고문을 썼다.

이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은 대통령의 불규칙(erratic)하고 무도덕한(amoral) 행태에 놀랐고 대통령의 그러한 행동을 악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각료와 참모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과다하고 적대적이며 제제하며 비효과적인'(impetuous, adversarial, petty and ineffective) 지도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의 근본은 대통령의 무도덕성(amorality)"이라면서 그것이 바로 트럼프가 임명한 행정부 관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끝낼 때까지 그의 잘못된 충동에 대해 반항하며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를 보존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맹세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기고문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익명의 필자와 NYT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망해가는 NYT에 실린 익명, 놀랍지 않은가 익명이란 것이, 이 익명의 저자를 갖고 있다는 건 배짱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훌륭하게 일하고 있다"고 항변했다고 트위터를 통해선 '자수'를 촉구했다. s914@news1.kr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마음대로 골라본다
\$14.99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VI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99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형제 떡집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베조스 막기법안 발의 저임금 대기업 세금 물린다

샌더스, 저소득층 직원 복지혜택 대기업 세금으로 대기업 저소득층 고용 꺼릴까 우려 목소리도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의회에서 아마존과 월마트 등 '돈은 많이 벌지만 임금은 적게 주는' 대기업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베조스 막기 법'(Stop BEZOS Act)이 발의됐다.

5일 CNBC 등에 따르면,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무소속·버몬트)은 저소득층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정부 복지혜택 비용을 전부 대기업 세금으로 충당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직원 수가 500명 이상인 미국 기업은 자사 근로자들이 받는 정부 복지혜택 비용의 10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법안의 이름은 아마존의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제프 베조스의 성에서 따왔다. 동시에 '재정 지원을 삭감해 나쁜 고용주를 막자'(Stop Bad Employers by Zeroing Out Subsidies)는 내용을 담는다.

샌더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을 소개하며 "더 이상 이 나라는 근로자에게 적절치 못한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록 실업률은 낮지만 현재 미국인 수천만명은 가족을 부양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임금조건 하에서 일한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아마존이 지난 4일 미국 뉴욕증시에서 장중 시가총액 1조달러(1117조원)를 돌파한 바로 다음 날에 나왔다. 아마존 주가는 이날 장중 2050.50달러를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 전날보다 1.33% 오른 2039.51달러로 마감했다.

샌더스 의원은 당일 트위터를 통해 "아마

존의 시가총액이 1조달러를 돌파했으나 소속 직원 수천명은 푸드 스탬프(정부에서 지급하는 식료품 할인권)와 메디케이드(정부 의료 보장제도), 공영주택에 의존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조작된(rigged) 경제를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비판했다.

아마존은 자사 직원들이 연방 복지혜택에 의존한다는 샌더스 의원의 지적에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연방 복지혜택을 받는 노동자 중에는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한 임시직 직원들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새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이 연방 복지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직원들의 고용을 주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 미 예산정책추진센터(CBPP)의 재러드 번스타인 선임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이 해결책이 복지 수혜자들을 악역으로 만들까 우려된다"며 "고용주들이 세금을 내면서 고용해야 하는 직원들의 채용을 경계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pasta@news1.kr



아마존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이자 워싱턴포스트(WP)의 소유주인 제프 베조스

두바이발 뉴욕도착 비행기서 19명 독감 메르스 가능성

CDC 메르스 가능성 검토중...일부환자 메카 방문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출발해 5일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한 에미레이트 항공 소속 여객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집단으로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 미 보건당국은 메르스(MERS·중동 호흡기 증후군)일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FP통신,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에미레이트항공 203편에 탑승한 약 521명의 승객과 승무원 가운데 100명가량이 비행 도중 몸이 좋지 않다는 신고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 여객기는 JFK 공항에 이날 오전 9시 10분에 도착했고, 모든 승객들은 공항경찰과 질병 예방통제센터 관계자들로부터 건강검진을 받았다. 그 결과 19명이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의 대변인 에릭 필립스는 "전체 탑승객 521명 중 발병한 승객은 19명이었다. 이 가운데 10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9명은 치료를 거부했다. 그 외 승객들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두바이 출신 승객 10명이 질병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독감이 아닌 메르스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CNN은 사안에 정통한 CDC 관계자를 인용해 미 보건당국이 메르스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8월 19일~24일은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인 하즈(Haji)와 겹쳐 발병한 승객 중 일부는 이슬람 최



승객 100명가량이 이상을 호소한 에미레이트항공 항공편

대 성지 메카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시 당국은 환자 전원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으나 승객들은 14시간 비행 내내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특히 항공사 측이 발병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자신을 탑승객이라고 밝힌 에린 사이크스는 트위터를 통해 "이륙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있다는 걸 누구라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륙 전 마스크를 요청했으나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사이크스는 "사람들은 비행 내내 기침을 했고, 현재 열이 화씨 100도(섭씨 37.78도)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환자들의 탑승을 허용해서는 안 됐다"고 비난했다. 승무원들은 착륙 약 30분 전까지도 승객들 중 환자가 있다는 말을 전혀 공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백악관도 점검에 나섰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대로 상황을 업데이트해 보고 받고 있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집장만 준비하는 성원
주택융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동상대출 나의노후? 케쉬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최적의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mlee@mbamortgageco.com
978.314.8818
2 Adams Place, Suite 410 | Quincy, MA 02169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dentallexington.com
www.ico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크라우저 &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개인상해법 전문

- ✓ 전문인력 취업비자(H-1B)
- ✓ 투자비자(E-2)
- ✓ 주재원 비자(L-2)
- ✓ 투자이민(EB-5)
- ✓ 특기자 비자(O-1, P-1)
- ✓ 가족초청이민
- ✓ 단기연수원비자(H-3)
- ✓ 시민권 신청
- ✓ 취업이민
- ✓ 주방재판
- ✓ 교수/연구직 이민
- ✓ 개인상해(교통사고)



▶ **BOSTON Office** **Tel. 617-566-7979**

1309 Beacon Stree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Fax. 617-566-7982

▪ Email : info@stevesuh.com ▪ 홈페이지(국문/영문/중문) : stevesuh.com / suhlawyer.com

▶ **MIAMI Office** ▪ Tel. 305-372-7776 ▪ 28 W Flagler St Suite 330 Miami, FL 33130

평양남북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북 비핵화 실천방안 도출

판문점선언 이행 · 항구적 평화정착 · 비핵화 실천적 방안 3대 의제 정의용 "비핵화 진전 위한 남북 간 협력 · 방안 심도있는 논의"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평양에서 개최될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대표단 수석격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방북 결과 브리핑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2박3일간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이 밝힌 남북정상회담 의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의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협의 등 크게 3가지다.

정 실장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특사단과의 면담에서 '여

러 차례 분명하게 천명했다'며 비핵화에 대한 자신의 의지가 확고함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4·27 판문점선언, 6·12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실천해왔음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경우 궤도의 3분의2가 완전히 붕락해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은 북한의 '유일한' 실험장이기 때문에 향후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의 완전한 중지를 의미한다며 이와 같은 조치가 '매우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조치'라고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신뢰가 "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있는 만큼 북미 관계를 개선해나가면서 비핵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즉 김 위원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약속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진다면 더욱 적극적인 조치들을 실행할 수 있다는 의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는 3가지 의제 중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협의'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미국의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비핵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조치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온도차를 줄이면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 조치를 견인하고, 이에 대해 만족스러운 국제사회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미국이 요구하는 핵시설 리스트 등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카드를 언급한 것이 있나"라는 질문에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북한도 남측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께서 평양에 방문하시게 되면 비핵화 진전을 위한 남북 간의 협력,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해 더욱 심도있는 논의가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ilverpaper@news1.kr

문 대통령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아야" 포용국가 역설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 살아야 한다"라며 포용국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포용국가전략회의에 참석해 "국민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복지국가 만

들기' 방법을 청와대 · 정부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의 비전과 전략을 체계화하고, 향후 사회정책 방향을 공식화하는 역대 정부 최초의 사회분야 전략회의다. 정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이번 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는 아직 개선되지 않고, 다수 국민에게 희생이 강요하는 불평등 사회 구조도 그대로"라며 "저출산, 노인빈곤율, 자살률과 같은 안 좋은 지

수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현실을 뼈아프게 들여다보고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더구나 앞으로 닥쳐올 초고령사회에서는 보다 적은 생산인구가 보다 많은 인구를 부양해야 한다. 지금 사회정책의 패더라임을 바꾸지 않으면 현재보다 미래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며 "고스란히 미래사회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국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주기 거쳐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포용국가

의 시작입니다. 포용국가는 국민의 모두의 나라"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정책에서 시작해 경제, 교육, 노동 등 전 분야에서 포용이 보편적 가치로 추구돼야 할 것"이라며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까지 배제하는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이고 철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국무위원들을 비롯해 130명의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argus@news1.kr

새봄 맞이는 오빠 스시와 함께!



사시미만 생각날때: 우럭, 광어, 도다리 각 \$60 (스끼다시 3종류 제공) 회덮밥, 한치회무침, 생선뼈 매운탕도 강추!



더 넓은 공간에서 맛있게 즐기세요!

한국식 회정식:
4인이상 \$40/1인, 3인 각 \$50, 2인 각\$60

사시미와 매운탕, 스끼다시, 생굴, 성게알, 대합, 생선찜, 아구간, 참치초밥, 불마끼, 참치타다끼, 방머묵살구이, 새우튀김, 열빙어튀김, 오징어튀김, 스킨버터구이, 해물라면, 아이스크림

한국식 회정식을 즐기세요!

yelp가 선정한 BOSTON BEST SUSHI!

OPPA SUSHI

617.202.3808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비자금 의혹 대법원 예산담당관실 압수수색, 관련자는 기각

재무담당관실, 이민걸 전 기조실장 사무실도 대상 박병대·임종헌 기각... "자료 남아있을 개연성 희박"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양승태 대법원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로 배정된 예산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대법원 예산담당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비자금 조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대법원 예산담당관실, 재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당시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결정 주체로 의심받는 박 전 처장과 강형주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 당시 기조실장 등의 사무실,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자료가 남아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관련해서 청구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의 서울고등법원 사무실에대한 영장은 발부됐다.

검찰은 2015년 대법원이 각급 공보관실 운영비를 처음 책정해 3억5000만원을 확보, 이를 상고법원 등 추진과정에서 고위 법관들에 대한 격려금 또는 대외 활동비 등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보관실 운영비에 대해 허위증빙서류를 만들어 소액 현금으로 분할해 전액 인출

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 돈을 인편으로 법원행정처가 전달받아 예산담당관실 금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법원은 배정된 예산을 현금으로 인출해 법원행정처에 교부했고, 행정처는 2015년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교부받은 그대로' 해당 법원장에게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 이유에 대해, 처음 편성된 공보관실 운영비에 대해 편성경위 및 집행절차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행정처 기조실장이 현금을 지급받은 법원장들에게 공지문을 돌려 '공보관실 운영비는 법원장님들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경비'라며 현금을 공보관실 운영비가 아니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재차 설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한편 대법원은 공보관실 운영비에 대해 감사원이 2016년 '매월 현금으로 정액 지급하는 것은 예산집행지침에 위배된다'고 지적해, 행정처는 현금 대신 카드로 해당 예산을 사용하는 등 집행방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후 2016년과 2017년에는 해당 법원에서 공보관실 운영비로 책정된 예산을 직접 사용했고, 2018년엔 행정처를 비롯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에서도 현금 대신 카드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한다. 대법원은 2019년 예산에는 공보관실 운영비가 편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yjra@news1.kr

국민 절반 이상의 다수, 병역특례 대상 확대 · 수혜자 축소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최근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일부 종목 선수들의 군 면제로 인해 병역특례형평성 논란이인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의 다수는 현행 병역특례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6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병역특례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는 확대하고, 수혜자는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28.6%로 가장 높았고,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

이 23.8%로 집계됐다. 국민 절반 이상의 다수가 병역특례제도의 수혜를 축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일부는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체육·순수예술 부문과 더불어 대중예술 등 다른 부문 역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는 해석했다.

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4%, '대상자와 수혜자를 모두 확대해야 한다'는 13.3%로 나타났다. '모름·무응

답'은 12.9%다. 성별로는 '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남성 32.0%, 여성 25.2%)가 남녀 모두에서 가장 높은 가운데, 특히 남성에서 높았다.

지역별로도 서울(30.2%), 경기·인천(31.2%), 부산·울산·경남(26.2%), 대구·경북(31.5%)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가 가장 많았는데, 호남(47.4%)에서는 '전면폐지'가 40%대 중반을 넘었고, 대전·충청·세종(31.3%)은 '현행유지' 의견이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바른미래당 지지층(42.4%)과 정의당 지지층(34.5%), 민주당 지지층(31.7%)에서 '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 의견이 가장 높았고, 자유한국당 지지층(30.0%)과 무당층(27.7%)에서는 '현행유지' 의견이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30.4%)에서는 '전면폐지', 중도층(33.8%)은 '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 보수층(30.0%)은 '현행유지'가 각각 1위로 나타났다.

pej86@news1.kr



BAB KOREAN BISTRO Brookline OPEN

보스톤에서 만나보시기 어려웠던 **한식 메뉴**와 뉴욕에서도 인정받은 **중화 요리**를 이제 보스톤에서 즐기세요.

대하짬과 보양전골 등,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여 더욱 다양한 음식을 맛보실수 있습니다.

짜장면, 볶음짬뽕, 사천탕수육
돼지순대국밥, 순대곱창전골
수제 만두, 냉면



MON - THU 11:30 - 10:00
FRI & SAT 11:30 - 10:30
SUN 11:00 - 9:00

TEL 617.383.5575
FAX 617.505.6458

1374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십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Realtor
Direct: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Realtor
Direct: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Featured Listing

Business NEW

세탁소 매매
보스톤 서쪽, 새기게, 좋은 위치. 연매상 32만불 이상
플랜트 + 드롭오프 스토어
Asking \$160,000

Business NEW

네일샵 매매
보스톤 북쪽, 3760 스퀘어피트, 새로 단장된 가게
Asking \$490,000

Residential NEW

주거 렌트
에버렛에 위치, 1,700 Sq. Ft. 넓은 주차공간 보스톤과 인접한 위치
월 렌트 \$2,400

Commercial NEW

커머셜 리스
369 Mass. Ave, Arlington, 알링턴 센터, 넓은 주차장, 1,000 s.f. 월 \$3,000 + NNN, 네일, 오피스, 세탁소, 드롭오프 스토어로 적합. Plaza 에 Dunkin Donuts 입주. Lots of foot traffic
월 렌트 \$3,000

NEW LISTINGS

Commercial NEW

Fish 마켓 매매
성공한 한인들의 발판이 되었던 비즈니스 보스톤 남쪽 변화한 물에 위치 연매상 450K 이상. 넓은 주차장 To-go 메뉴로 Extra 수입.
Asking \$160,000

Business NEW

한국식당 매매
년 매상 \$1,800,000
Asking \$630,000

Commercial NEW

세탁소 단독건물 매매
보스톤 인근에 위치 안정된 매상, 좋은 위치 및 개발중인 Complex 인근에 위치
Asking \$1,095,000

Residential NEW

럭셔리 콘도 매매
1 Charles St. South Unit 812 Boston Refined luxury residence at 1 Charles, luxury full service 2Bed 2Bath condo top of the line finishes throughout, 1 Garage space, Boston Common, Newbury st 과 근접. 좋은 위치
Asking \$1,299,000

Business NEW

드롭오프 스토어 매매
보스톤 북쪽 좋은 위치와 저렴한 렌트비
Asking \$50,000

Business NEW

세탁소 매매
Shrewsbury Full Plant 세탁소 White City Mall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Lots of foot traffic 안정된 수입
Asking \$399,000

Business NEW

세탁소
보스톤과 인근에 위치, 드롭오프와 풀플랜트 매매 년 매상 \$320,000 + 고정된 안정적인 수입
Asking \$350,000

Business NEW

세탁소
보스톤 인근에 위치 좋은 로케이션, 풀 플랜트 안정된 수입
Asking \$125,000

Business NEW

세탁소
보스톤 서쪽에 위치, 풀 플랜트 물에 입점, 대형 주차공간 18년째 운영중
Asking \$315,000

Business Price Reduced

한식&일식 식당
보스톤 서쪽, Full Liquor 연매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99,000

Business Price Reduced

네일샵 매매
교통 좋은 위치, 숙련된 테크니션들 안정된 고객층 연매상 \$350,000 이상
Asking \$180,000

Business NEW

Take Out Seafood 튀김 가게
보스톤 환승 스테이션 위치, 독점 상권 종일 바쁜 가게, 매상 50% 순수익 연매상 \$300,000이상
Asking \$150,000

Business NEW

중식당 매매
30년이상 전통 중식당, \$1,700,000 년매상 6,000+ Sq.Ft. 250 좌석 보스톤인근 좋은동네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695,000

Business Price Reduced

세탁소
보스톤 남쪽 좋은 위치 연매상 \$200,000 이상, 확보된 많은 고객과 안정된 수입
Asking \$160,000

Business Price Reduced

세탁소
보스톤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60,000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NEW LISTING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Yousuf Masud
978.995.1049



Lisa Lee 이세영
857.294.9760



Vicky Xiao
617.480.6362



NJ Kim
617.615.7596



Just listed: Single Family
7 Lilac Court, Acton, MA
Asking price: \$420,000
Listing Agent: Jenn Harloon
Phone: 508.331.2092



Just listed: Single Family
110 Hudson Road, Stow, MA
Asking price: \$675,000
Listing Agent: Kevin Curry
Phone: 978.852.2969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Newton, MA 02461
Asking: \$100,000
Listing Agent(s): Janice Lee



Just Listed: Single Family
16 Abbey Road – Unit 16
Sherborn, MA
Asking: \$1,2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Single Family
12 Antique Circle, Sudbury, MA
Asking: \$929,000
Listing Agent: Bill Glanton
Phone: 978.394.2017



Just Listed: Single Family
4 Duston Lane, Acton, MA
Asking: \$2,995,000
Listing Agent: Joe Azzolino
Phone: 978.828.7062



Allen Quinn
978.897.2781



David Wu
508.930.1543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Alex Chen
617.901.8458



David J. Oliveri
508.400.080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T: 781.259.4989, F: 781.259.4959

Newton Office:

95 Union St., Newton, MA 02459 T: 617.969.4989, F: 617.969.4959

Belmont Office:

451 Common St., Belmont, MA 02478 T: 617.826.3434, F: 617.826.3446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Steve Son
617.290.0623



Ken Tlagae
617.959.5500



Victoria Tu
978.201.5615



Angela Eleazar
617.319.6657



Frank Mcmanus
317.690.6187

NEW LISTINGS



Just listed: Single family
65 Croton Street
Wellesley, MA
Asking price: \$1,6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Single family
84 Wellesley Road
Belmont, MA
Asking price: \$2,800,000
Listing Agent: Frank Mcmanus



Just listed: Single family
292 Mendon Road
Sutton, MA
Asking price: \$535,000
Listing Agent: Maria Koral



Just listed: Single family
160 Clinton Street
Hopkinton, MA
Asking price: \$589,000
Listing Agent: Cliff LaPorte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Restaurant w/ Liquor License
Tyngsborough, MA
Asking price: \$145,000
Listing Agent: Ken Tlagae



Just listed: Rental
424 Washington Street - Unit 1
Gloucester, MA
Asking price: \$2,450/mo
Listing Agent: Bill Busiek



Maria Koral
978.973.6043



Bill Busiek
781.820.1569



Cliff LaPorte
978.424.3045



M. Keith Peifer
304.963.2923



Johanna Parlon
978.501.4753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앤젤라 엄 (Angela Suh Um)

보스톤 아카데미 컨설팅 그룹(Boston Academic Consulting Group) 대표



앤젤라 엄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본사가 있는 보스톤 아카데미 컨설팅 그룹(Boston Academic Consulting Group, Inc.)의 창립자이자 수석 컨설턴트입니다. 앤젤라 엄은 하버드 학부를 졸업하고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하버드와 MIT에서 수석 입학사정관(Senior Admissions Officer)을 역임하였습니다. 보스톤 아카데미는 12학년 학생들의 대학 지원과 6학년에서 11학년 학생들의 교육 가이드 및 카운슬링을 전문으로 하는 유수의 교육 컨설팅 회사입니다. 상세 정보 Tel: (617) 497-7700, Email: info@bostonacademic.com 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Homepage: www.BostonAcademic.com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o portion of this article shall be published, re-produced, or otherwise used in any form without the express written consent of the author.

최고 명문 대학 입학 전략

SAT는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지난 8월 25일 미국 국내에서만 치러진 SAT 시험은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엄청난 분노와 논란을 불러 일으켰는데, 왜냐하면 SAT 시험을 주관하는 칼리지보드(College Board)가 작년(2017) 10월에 국제적으로, 특히 전 아시아에서 실시한 SAT 시험 문제를 그대로 재사용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2017년 10월 SAT 시험은 중국과 한국에서 문제가 유출되어, SAT 학원들을 통해 수강생들에게 대량으로 배포됨으로써 2018년 8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8월 시험 전에 이 문제를 보고 연습을 한 학생들은 불공정한 이점을 안고 시험을 친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SAT 성적은 상대평가, 즉 당일 시험을 친 전체 학생들 성적을 비교하여 평가하기 때문이다.

대중들의 분노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칼리지보드는 예정대로 오는 9월 7일에 8/25 SAT 시험 성적을 배포하겠다고 발표했다. 칼리지보드는 SAT 시험과 모든 AP(Advanced Placement) 시험을 주관하며, 시험 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기관이다. 칼리지보드는 자신들이 “비영리” 재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년에 6천 2백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며, 현 회장인 데이빗 콜먼(David Coleman)의 연봉은 55만 불이 훨씬 넘고, 23명 이사들의 평균 연봉도 35만 5천 불이다. 일년에 2억 불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가진 칼리지보드는 그 예산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새 시험 문제를 개발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겨우 1년 전에 실시된 시험 문제를 재사용하고 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칼리지보드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고, 이 기관이 학생들과 그들의 대학 진로라는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것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 기관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

8월 SAT 시험 논란에 대해서 칼리지보드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학생들이 불공정하게 이익을 보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 조치에는 시험성적 취소 및 어떤 경우에는 해당 학생들이 칼리지보드에 실시하는 다른 평가에 응시 금지하는 것까지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말은 공허한 다짐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어떤 학생들이 자신의 SAT 학원 선생을 통하거나 혹은 온라인 상에서 유출된 2017년 10월 SAT 시험 문제를 미리 보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8월 SAT 시험을 친 학생들은 그냥 9월 7일 자신의 운명을 알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다.

SAT에 대한 논란은 오래되었다. 지난 7월 SAT 시험은 “너무 쉬워서” 만점 획득자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칼리지보드는 어쩔 수 없이 성적을 조정해야만 했다. 4년 전 5월 SAT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전

체 시험이 취소되었다. 수 많은 한국 교육자들에게는 창피한 일이었지만, 당시에 시험 문제 유출을 통한 부정행위가 광범위하게 저질러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시험을 전부 취소해야만 했다. 수천 명의 고등학생들이 희생양이 되었고, 어떻게 해야 될 지를 몰라 허둥댔 수밖에 없었다. 불행히도 한국 학생들의 SAT 성적이 의심 받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2007년의 경우, 한국에서 900명의 SAT 성적이 부정행위 의심 때문에 취소되었다.

이런 모든 스캔들 와중에 독자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 SAT 시험은 수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대학입학시험” 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단지 전체 퍼즐 가운데 한 조각에 불과하며, 학생의 지원서 전체를 평가하는 복잡한 요인 가운데 하나의 자료일 뿐이다. SAT는 마치 한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대학입학시험” 처럼 대학 합격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가 절대 아니다. 하버드, 예일, 그리고 스탠포드 같은 대학들은 매년 SAT 만점자 수백 명을 탈락시킨다는 것이 팩트다. 더구나 이들 대학에 지원하는 고교 수석졸업자들 가운데 평균 80-90 퍼센트가 불합격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미국의 명문대학들이 원하는 학생은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거나 범생이 공부벌레, 혹은 시험 전문가들이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학생은 역동적인 리더, 분명한 비

전을 가진 사람, 시대의 흐름을 바꿀 혁신가, 심오한 사상가, 그리고 남들과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범하거나 독특한 개인들이다. 아이비리그 입학사정관들은 학교 성적이 “충분히 훌륭한” 지원자들이 차고 넘친다. 그들의 학교 성적표는 거의 대부분이 A 학점이고, SAT 성적들도 700점 대이며, AP 시험 성적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에 입학하려면 좋은 학점과 SAT 성적만 가지고는 안 된다.

반면에 명문 공립대학들, 예를 들어 UCLA, 텍사스 오스틴 (University of Texas-Austin), 일리노이대학, 그리고 미시간대학(University of Michigan) 같은 대학들은 실제로 학점과 시험성적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며, 따라서 “똑똑하지만 재미 없는” (smart but boring) 학생들은 대부분이 합격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버클리(UC Berkeley)와 UCLA에 그토록 많은 아시아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똑똑하긴 한데 재미는 없다.” 이런 학생들은 시험치는 기술은 뛰어난지 모르지만, 명문 사립대학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성이나 독특한 탁월함까지는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아이비리그가 원하는 지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지 좋은 학업 성적과 SAT 점수만 가지고는 안 된다. 개성, 리더십, 성숙함, 창의력, 그리고 인격 등의 무형의 자산들이 합격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보스톤 최고 명성의 부동산 회사 Centre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는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Cell: 339.224.1512

Kakao ID: susan1223
Email: susan.ahn@centrerealtygroup.com

1280 Centre St.
Newton, MA 02459



Jay Lee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잘 하겠습니다!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개발 투자상담 환영

금주의 LISTINGS

 <p>2 family house, Newton 투자나 거주에 적합 4 Pearl-Peabody St.</p> <p>ASKING \$1,490,000</p>	 <p>2 family house, Newton good for investment 48-50 Lexington St.</p> <p>ASKING \$1,250,000</p>	 <p>북부 Boston의 성업중인 Drop Shop을 원하십니까? 단돈 \$50,000</p> <p>ASKING \$50,000</p>
 <p>새로이 설립되어 성업중. 무한한 가능성. 알링턴 Nail Salon & Spa</p> <p>ASKING \$375,000</p>	 <p>Springfield 지역 성업중 Full Plant Cleaner Shirts 포함</p> <p>ASKING \$160,000</p>	 <p>로드아일랜드 "뉴-포트 맨손" 관광지역 한 복판에 성업중인 스시 식당</p> <p>ASKING \$100,000</p>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Anna Jung
617.780.1675






Sung Bin Oh
978.505.3736

SOLD

1. 퀸지 마리나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SOLD**
5. Nail salon in Dedham **SOLD**
6. Brighton 1 Bedroom condominium **SOLD**
7. Dedham Single Family House, 6 Bed/4 bath **SOLD**
8. Boston Fenway Condominium, \$668,000 **SOLD**
9. Arlington Single Family House, \$1,495,000 **SOLD**
10. Quincy Single Family House 4 Bedroom **SOLD**
11. Dedham Single Family House \$745,000 **SOLD**
12. Drop shop in Newton \$49,000 **SOLD**

LISTINGS

 <p>North Andover 성업중인 풀 플랜트 세탁소</p> <p>ASKING \$130,000</p>	 <p>Allston, Brighton 한국 식당</p> <p>ASKING \$168,000</p>	 <p>캠브리지 비어 와인 팩캐지 store</p> <p>ASKING \$200,000</p>
--	---	--

Direct:
Jay B. Lee 781.654.5281
jayblee@newstarrealty.com

TEL.617.467.5218 FAX.617.467.5273
www.newstarrealty.com 19 Needham St. Newton, MA 02461



Korean BBQ • Korean Buffet

이가 그릴

Regas Grill 구 아리랑 하우스
BOSTON 한국 BBQ Buffet 원조
“특선 우거지 갈비탕, 육개장, 곰탕“






최고의 한식당 BBQ 전문
Buffet 및 BBQ, A La Carte,
Hot Pot Buffet Available
단체환영

Tel 978 725 5222, Fax 978 725 5223 regaskoreangrill.com
609 South Union St. Lawrence, MA 01843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건국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건인	617-338-2352
고등교육위원회	800-632-8075
고등교육정보센터	617-727-7785
공중위생국	800-442-1171
구세군	617-624-6000
국제청	617-536-7469
날씨문의	800-829-1040
로간국제공항	617-976-6200
미야치기	800-235-6426
백배이역	888-477-6721
보스톤공립학교	617-345-7958
보스톤수도	617-635-9000
보스톤시청	617-989-7000
보스톤총영사관	617-635-4500
사우스릭	617-641-2830
사회보장국	617-345-7958
성폭행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야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안전연허	617-351-4500
웰페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회선신청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연합가정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연합가정선교연합회(N)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주세초대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등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781-854-8880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NE협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대화(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80-2999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대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대동문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548-9052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어일랜드장로교회	401-353-0983
로어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RH생명의길장로교회	203-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할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617-1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781-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안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여류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선한목자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엘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터장로교회	781-354-1843
위스프룬터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퀸시영성장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정판브랜드스머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미사이딩 청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 개인 PGA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준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영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우 회계사	781-944-2442
Hana Rehab Clinic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타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투영역)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인뱅크	617-799-6158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탕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윤상태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장흥식주문	781-648-0584
한미음식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열광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그레스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펀	617-787-1735
헤어 크레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치혜 헤어(Bloss Image)	617-818-5596
헤어엔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MIN-AH MAKEUP	508-617-7122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돌상 대여/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양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맥켄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병원(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한성식내과	978-854-6376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해밀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클리닉로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톤컨스테드카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완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캠브리지덴탈	617-492-8210
캐롤라이나덴탈	617-871-1482
퀸지아치과	617-471-2184
손영권치과	978-459-0594
프로스펙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희보철임플랜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Smart Dental	781-322-4914
ACTON 살롱치	978-263-4592

기타

메모리클럽(병리)	203-330-8080
문허어림 보정기	781-573-3

벤츠와 용병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는 15권에 이르는 방대한 책이지만 죽기 전에 한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로마제국의 기원에서부터 흥망성쇠를 다룬 책은 영국의 에드워드 기본이 쓴 <로마제국 흥망사>가 기본이지만, 읽는 재미로는 시오노 나나미의 책이 나긋나긋하고 수월해서 더 낫다. 아무튼 그 책에 의하면 로마인들은 일찍부터 용병을 활용했다. 처음엔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 정복지의 남자들이 군에 들어갔고, 나중에 돈을 벌기 위해 남자들이 군에 들어갔으며, 결국에는 용병들의 반란으로 로마제국이 무너지게 된다. 로마의 흥망사는 용병들의 흥망사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게르마니쿠스>는 불운한 장군과 그를 따르는 용병들의 비극을 잘 보여준다.

용병은 영어로 mercenary라 한다. 용병 즉 고용된 병사가 mercenary라 불리게 이유는 장사와 약탈의 신인 mercury와 관련이 있다. mercury는 약탈품을 의미하는 merc와 '관리하는 사람'이란 뜻의 -ury가 합해진 말이다. 로마

장군들인들 돈이 있었겠는가. 싸움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의 일부를 병사들에게 나누어주었고, 그러한 분배 문제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한 사람이 바로 줄리어스 쥘리우스이다. 그는 심지어 부인이 아니라 애인에게서 끈 돈으로 병사들을 유지하는 수완을 보이기도 했다. 아무튼 약탈품, 전리품을 받는 병사가 바로 mercenary이다.

전리품에서 나아가 물건을 나누어주는 것은 mercy이다. 자비란 나누어주는 것이니까. 로마시대의 장사꾼들은 약탈품을 파는 일이 종종 있었다. 이런 사람들을 merchant라 불렀다.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에 나오는 merchant는 어원적으로 볼 때 흠치거나 빼앗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었다. merchant가 약탈품을 파는 곳이 market이다. 장사와 약탈의 신 mercury에서 철자가 약간 바뀐 것이다. merchandise는 약탈품이었으나 오늘날 '상품, 물품'이란 뜻으로 일반화되었다.

mercury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을 가리키기도 한

다. 지구는 한 달에 한번 태양 주위를 도는데 비해 수성은 훨씬 더 빨리 돌기 때문에 mercurial은 '변덕스러운'이란 뜻으로 쓰인다. mercury는 '수성'과 더불어 '수은'을 의미하기도 하다. 수은은 온도계를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해서 The mercury fell below zero. (온도계가 영하로 떨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로마신화의 Mercury는 그리스 신화의 Hermes에 해당한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로써 전령의 신이자 여행, 상업, 약탈의 신이기도 하다. 서양문화에서 여행, 약탈, 장사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어에서는 h가 발음이 되지 않으니 Hermes를 [에르메스]라 발음한다. 귀부인들이 좋아하는 '에르메스'는 영어식 발음으로는 [허미스]이다. 프랑스어 발음은 웬지 고급진 느낌인데 비해 영어식 발음은 정말 멋대가리 없다.

독일산 고급차인 메르세데스-벤츠는 Mercedes-benz라 쓴다. 메르세데스 가문과 벤츠 가문이 결합한 회사이다. 철자를 보면 이

단어도 약탈과 장사의 신 mercury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로마인 이야기>에서도 언급되지만 Mercedes는 원래 독일이 아니라 스페인의 성씨이다. Maria de las Mercedes 즉 '자비로운 마리아'란 이름에서 왔다. Mercedes는 '자비'란 뜻을 가지는 merced의 복수형이다. 그리고 이 스페인 성씨는 당연히 라틴어 merces에서 유래한다. 어떻게 독일까지 이 성씨가 퍼지게 되었는지는 굳이 알 필요가 없겠지만 아무튼 메르세데스-벤츠라는 유명한 자동차 이름은 멀리 스페인 출신의 가문

에서 유래한다.

요즘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프로 스포츠 팀들에서 소위 '용병'들이 활약한다. 박지성은 맨유의 용병이었고, 펠레는 LA 축구팀의 용병이었으며, 메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용병 선수이다. 이들이 용병이라 불리는 이유는 돈을 받고 고용된 외국인 선수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말에서는 '용병'이란 별칭으로 불리지만 이걸 영어로 mercenary라 번역할 수는 없다. 영어로는 외국인 고용 선수를 mercenary로 칭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우석 변호사 법률칼럼

장우석 변호사 (메사추세츠 주, 뉴욕 주, 메사추세츠 지역 연방법원)
게시글 관련 문의: 781-712-1706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서, 교민들이 알아두면 대처하기에 좋을 주제들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경기와 소득에 민감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채무관련한 내용입니다.

챕터7 파산보호 관련 (6)

지난주까지는 동산/부동산 자산이외에 채무자에게 유리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 리스 계약이나 다른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고, 행정적인 절차 후, 파산보호 명령을 받음으로써 긴 과정을 마치게 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첫 180일동안 유의할 부분과,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서 파산보호와 관련한 기본 연재를 마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세부사항으로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이후... 첫 180일 동안!]

파산변제명령을 받고 나면, 예전처럼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의할 시간과 사항은 첫 180일 내에 자산에 특별한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트러스티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변동이 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산 상속이 이뤄지거나, 유산 상속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경우
- 보험금 수령이나, 복권에 당첨되는 경우
- 이혼으로 인해 합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만일 위와 같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았다가 발각되는 경우에는, 트러스티와 파산법원은 재산 반환을 명령하게 되고, 더더욱 큰 일은 파산 변제명령이 취소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산으로 인해 차별받는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파산기록만으로 차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방법(11 USC s.525(a))은 연방정부뿐 아니라, 주정부, 지방정부까지도 각종 인/허가, 프랜차이즈 등의 파산보호를 신청했다는 기록 하나로 재발급을 취소하거나 유예하거나 거절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보호를 신청한 기록자체를 심사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록 자체만으로 경제생활이 장애를 받거나 접어야 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며, 파산을 하던 안하던 이를 고려할 단계가 되면 재정적으로 이미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파산을 통해 이런 총체적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인/허가를 신청해야 하거나, 사기업에 취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파산보호 사실만으로 인/허가 취소가 되거나, 사기업에서 해고가 되는 일은 불법입니다.

[#1 관심사항 - 그러면 신용점수는 어떻게 다시 쌓을 수 있는가? 3년/5년]

파산 기록은 변제명령이 나온 후, 크레딧 리포트에 10년간 남아 있지만, 3년안에 주요 여신사들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는 정도까지 신용을 재건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정적 근로수입이 있는지 그리고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물건이나 용역을 구입하고 갚아가는지이며, 대부분의 신용카드 회사들은 파산기록이 5년이상 되게 되면, 더이상 파산사실을 고려하지 않기도 합니다!

[#2 - 크레딧 리포트 정기적 확인]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신용카드 사용하고 열심히 갚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은, 바로 신용부류3사에서 제공하는 연간 보고서입니다.

에퀴팩스,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의 신용보고서를 보고 싶으시다면, 위 회사에 전화하시 마시고, www.annualcreditreport.com이나 Annual Credit Report Request Service, P.O. Box 105281, Atlanta, GA 30348-5283로 우편요청하시면 됩니다.

요청하실 때는, 이름, 지난 2년간 거주한 곳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고용주, 사회보장번호 (소셜시큐리티넘버)를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미국법에 의해 1년에 한번씩 신용 보고서를 무료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매 4개월 마다 위 3사를 하나씩 선택하여 신용보고서를 신청하시면 현재 본인의 이름으로 열려있는 계좌와 누군가가 본인의 신용을 조회한 요청 등 세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7월	에퀴팩스
11월	익스페리언
3월	트랜스 유니언

이렇게 달력에 표시해 놓으시고, annualcreditreport.com에 접속해서 하나씩 선택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보시고 나서 항상 다운로드 (저장) 해 놓으시거나, 프린터로 출력해서 하드카피를 가지고 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살펴보기 용이하구요.

물론, 이 무료 서비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용점수(파이크 스코어)는 알려주지 않습니다만... 보고서 속에 들어있는 내용의 정확성만 점검해도 파산 변제명령 이후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고, 혹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이나 신분도용등 심각한 문제는 예방하거나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안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 Nazarene Parish of Central District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45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토) 오전 10시 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예비신자 교리반
9월 26일(수) 8pm 시작합니다.

45 Ash St. Newton MA02466 / 617-558-2711
office.kccb@gmail.com / www.stdaveof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열

HANN 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685.7688**
781.492.7664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권중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동고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회: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4989 부동산 매개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HAPPY
해피돌상

고용권 전통상 대어 (비양산, 등미)
한국 최대의 전국적인 전통상 거점상가인,
오송장 내 비양산정공의 마을 (비양산정공)
저렴하고 푸짐하게!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 금 오후 8:00
새벽예배 :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n1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톤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하이트론스 16주년 대잔치

행사기간: 8월 말까지

안마의자 전문 기술자가 꼼꼼하게 분석하여 확실한 제품들만 권해드립니다! 안심하고 구입하세요!

안마의자 전문 기술자 상시대기
5년간 개런티 + 자체 제작 고급 PAD (\$150 상당) 무료제공

파나소닉 MA70 특별세일!

선착순 30대

하루 카피한잔 값으로 고급 안마의자를 구입하세요!

\$2.9

Reg \$7,000 **\$81/월** 60개월 + Tax



이 최대 규모 명품 안마의자 전시장 하이트론스

"사랑하는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INADA DREAMWAVE
\$250 /월 36개월 + Tax

INADA DREAMWAVE

106개 에어백으로 혈관을 자극해 몸에 쌓인 노폐물을 풀어주고, 노인성 질환, 당뇨병자에게 특히 효과가 탁월합니다.

PANASONIC MAJ7

3명의 프로 안마사가 동시에 156가지 기술을 발휘, 단순한 롤러가 아닌 마사지 전문가의 마사지 기법을 완벽하게 재현한 강력한 안마의자!

Panasonic MA J7
\$167 /월 60개월 + Tax

INADA NEST
\$7,800 **\$6,000**
24개월 + Tax

INADA FLEX 3S
\$7,500 **\$4,300**
12개월 + Tax

PANASONIC MA73
\$223 /월 36개월 + Tax

OREST OS 5000
\$114 /월 66개월 + Tax

PANASONIC 30007
\$100 /월 36개월 + Tax

POSITIVE POSTURE BRIO
\$6,800 **\$4,500**
24개월 + Tax

OSAKI OS Pro Maestro
\$8,700 **\$6,200**
24개월 + Tax

FUJIIRYOKI FJ 7900
\$158 /월 36개월 + Tax

COZZIA CZ 710 Qi SE
\$166 /월 36개월 + Tax

PANASONIC MA10
\$83 /월 24개월 + Tax

LABOR DAY SALE 김치냉장고 대세일

담채 / 대우 / LG / 삼성

노동절 스페셜
(9월 15일까지)
스탠딩 김치냉장고 구입시
담채 스탠딩 구입시
위니아 공기청정기 무료

\$2970	\$3270	\$2520	\$2699.00	\$2199.00	\$2699.00	\$1520	\$1120
\$649.00	\$699.00					\$770	

ORDER NOW

HITRONS 보스톤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781-862-6867** www.hitrons.com

- | | | | | | |
|--|---|--|---|--|---|
| NJ Main Branch
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201-941-0024
(Ridgefield Hanyang Mall) | Bethel Health - NY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445-2005
(Korea Village 1st fl.) | Bethel Health - NJ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8-809-1167
(Inside HanNam Mart) | PA Branch
1222 Welsh Rd, Unit B5,
North Wales PA 19454
215-368-1070
(Assi Plaza PA) | MD Branch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410-465-7125
(Lotte Plaza Market) | Mattress-NJ
470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201-941-0010
(Next to the Durkin Donuts) |
|--|---|--|---|--|---|

'내뒤에테리우스' 소지섭, 블랙요원 카리스마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올 하반기 기대작 MBC 새 수목드라마 '내 뒤에 테리우스' (극본 오지영/연출 박상훈, 박상우/제작 MBC, 몽작소)가 베일을 벗었다.

30일 공개된 '내 뒤에 테리우스'에서 프리 티저 영상에는 전설의 국정원 블랙요원 김본 역으로 분한 소지섭의 강렬한 카리스마가 담겨 드라마 팬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내 뒤에 테리우스'는 사라진 전설의 블랙 요원과 운명처럼 첩보 전쟁에 뛰어들어 앞집 여자의 수상쩍은 환상의 첩보 컬래버레이션을 그린 드라마로 소지섭은 가슴 아픈 과거를 간직한 채 세상에서 사라진 전직 국정원 블랙요원 '김본'을 맡아 열연을 펼친다.

공개된 프리 티저 영상에는 국정원 블랙요원 김본의 강렬한 카리스마가 눈길을 끈다. 첨단 장비들이 갖춰진 상황실에 등장한 김본은 뒷모습이라도 비밀 임무 수행을 앞둔 비장함과 무게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이 어 'TARGET SIGNAL LOST'라며 돌발 상황이 발생, 상황실에서 있던 블랙요원 김본의 뒷 모습도 함께 사라지며 '블랙요원 테리우스, 그가 사라졌다'는 자막으로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과연 블랙요원 김본은 어떤 인물이며, 이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그가 사라진 사연에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프리 티저 영상은 폴란드 바르샤바를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영상미와 웅장한 스케일 그리고 눈빛만으로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는 소지섭의 숨을 멎게 만드는 포스까지 약 20초 가량의 짧은 영상임에도 순식간에 몰입시키며 예비 시청자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폴란드 바르샤바는 소지섭이 맡은 김본 캐릭터의 서사가 담긴 핵심 포인트다. 프리 티저 영상은 블랙요원으로 분한 소지섭의 냉철하고 강렬한 카리스마를 보여주며 사라진 전설의 요원 김본의 존재감을 제대로 각인시키고 있다.

한편 '내 뒤에 테리우스'는 대한민국 대표 카리스마 배우 소지섭을 비롯해 정인선, 손호준, 임세미 등 믿고 보는 대세 배우들의 조합과 김여진, 정시아, 강기영, 서이숙, 엄효섭, 성주 등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명품 조연들까지 최강의 라인업을 구축, '시간' 후속으로 오는 9월 말 처음 방송된다.

aluemchang@news1.kr



'밥블레스유' 정해인 출격에 누나들 환호성, 이영자 "먹은 것 다 잊었다"

(서울=뉴스1스타) 장수민 기자 = 밥블레스유'에 정해인이 출격했다.

6일 방송한 올리브 '밥블레스유'에는 안주를 먹기 위해 술집에 등장한 '밥 잘 먹는 언니'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마치 일본을 여행하는 듯한 다채로운 음식들을 맛보면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일본에서의 경험담도 털어냈다. 이영자는 "일본은 다 좋은데, 지진 때문에"라고 포문을 열었고 송은이는 "양희은 선생님과 여행했는데 호텔이었는데 진동이 왔다. 잠을 못 잤다. 다음날 로비에서 양희은 선생님에게 날 주무셨냐고 물어보니 잘 주무셨다고 하더라"며 "지진이 났었다니까 지진이 났냐 물어보시더라"며 잠자리

에 예민하다던 양희은이 지진이 왔을 때는 도리어 잘 잤다고 설명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후 이들의 관심사는 정해인으로 옮겨갔다. 송은이는 "보면 볼수록 괜찮다"며 정해인을 '해인'이라고 불렀고, 이영자는 관심을 가지며 전화를 해 보라고 전했다. 하지만 수화음만 들릴 뿐이었다.

게스트하우스의 문을 열고 정해인이 들어오자 이영자는 기뻐했고, 그에게 씩씩이 퍼주며 "나는 정해인 씨 보자마자 아까 뭘 먹었는지 다 잊었다"라고 말해 웃음을 더했다.

한편 '밥블레스유'는 매주 목요일 오후 9시 방송한다.

jjm928@news1.kr

9월 9일 - 9월 15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돌파구가 필요</p> <p>● 운수: 혼란과 갈등에서 벗어나려면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너무 지나치게 일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세요. ● 금전: 투자나 개인적인 금전거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돈이 내손에서 빠져 나가면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 애정: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가지 마세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지속적인 사랑을 통해 배우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9, 13일 길일, 11, 14일 주의.</p>	<p>소띠 크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고</p> <p>● 운수: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게 됩니다. 주위로부터 호의적인 제안도 들어올 것입니다. ● 금전: 크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려고 노력하다보면 수입도 늘어날 것입니다. ● 애정: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엮어갈 아름다운 사랑의 전주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0, 14일 길일, 12, 15일 주의.</p>	<p>범띠 인정하고 받아주어야</p> <p>● 운수: 작은 것 하나에도 날날이 신경이 곤두서고 짜증내기 쉽습니다.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확실하게 하던 일만 그대로 진행시키면 금전운은 좋아질 것입니다. ● 애정: 내 생각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상대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1, 15일 길일, 10, 13일 주의.</p>
<p>토끼띠 처음에 결정된 것부터</p> <p>● 운수: 순간순간의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군요. 처음에 결정된 것부터 확실하게 처리해 나가야겠습니다. ● 금전: 너무 과신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 믿다보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 애정: 상대에 대한 연민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동정적인 마음을 사랑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으니 잘 생각해야 합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2, 15일 길일, 11, 14일 주의.</p>	<p>용띠 행복이 가득한</p> <p>● 운수: 작은 물고기가 넓고 큰 바다로 나가는 운세입니다. 크게 발전하는 기회가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금전: 큰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눈앞에 다가옵니다. 실질적으로 주머니 사정도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 애정: 서로 통하니 마주보는 기쁨으로 행복이 가득하겠습니다. 떨어져 있는 시간에도 앉으나 서나 상대 생각으로 보내게 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3, 14일 길일, 12, 15일 주의.</p>	<p>뱀띠 고민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p> <p>● 운수: 그동안 쌓여있던 마음속의 고민과 불만을 해소할 수 기회가 생기겠습니다. ● 금전: 될 수 있는 한 앉은 자리를 뜨지 말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비결이 되어줄 것입니다. ● 애정: 조금씩 상대를 이해하게 되는 방향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믿고 싶었던 상태에서 오히려 상대가 안됐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1, 14일 길일, 13, 15일 주의.</p>
<p>말띠 인생을 바꿔놓는</p> <p>● 운수: 적지 않은 파문을 불러일으키는 때입니다. 인생을 바꿔놓는 사건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하던 일에만 온 신경을 쏟아야 합니다. 금전문제로 얽히고 부딪을 가지게 되면 일의 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애정: 삶의 중심축이 흔들릴 우려가 있습니다. 빈자리를 새삼 느끼게 되겠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0, 15일 길일, 11, 14일 주의.</p>	<p>양띠 획기적인 조건으로</p> <p>● 운수: 희망적인 일에 대한 제의가 들어오고 획기적인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직장을 구하는 경우에는 원하는 것을 얻게 되겠습니다. ● 금전: 계약이나 매매 성사로 돈이 들어옵니다. 주위의 도움이 경제적인 면으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 애정: 어디를 가든지 이성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좋은 상대와의 만남도 기대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0, 11일 길일, 12, 15일 주의.</p>	<p>원숭이띠 여유가 생기고</p> <p>● 운수: 누구나 자신에게 딱 맞는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잘 맞고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 금전: 수입이 늘어나니 여유가 생기겠습니다. 평소보다 나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싱글은 우연한 계기로 교제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아집을 버리고 솔직하게 상대에게 다가가면 성공할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9, 14일 길일, 10, 13일 주의.</p>
<p>닭띠 지출은 최소한으로</p> <p>● 운수: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겪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편하게 받아들이세요. 정의와 성실로 일관된 삶을 살 있음에도 불운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 금전: 수입이 안정되지 않아서 다소 위축되기 쉽군요. 우선은 지출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 애정: 자꾸 어긋나기 쉽습니다. 뭔가가 맞지 않아서 갈등도 생깁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9, 10일 길일, 11, 15일 주의.</p>	<p>개띠 적게 말하고 많이 행동해야</p> <p>● 운수: 적게 말하고 많이 행동해야 하는 때입니다. 말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라는 말을 기억하고 그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지나치게 재물을 탐하다가는 오히려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현상유지에 만족하고 사업의 확장이나 새로운 투자는 피하도록 하세요. ● 애정: 부부로 인연을 맺는다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11, 13일 길일, 9, 12일 주의.</p>	<p>돼지띠 사물을 아름답고 밝게 보는</p> <p>● 운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사물을 아름답고 밝게 보는 시각이 행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 금전: 돈을 필요로 하다 보니 돈을 벌기 위해서 오히려 돈을 투자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애정: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2, 15일 길일, 10, 13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영어 통역해 주실 분 구합니다.
T. 781-953-5816

캠브리지에 위치한 작은 한국식당에서 성실이 일하
실분을 구합니다. 월,수 (근무시간: 10:30-20:30)
Email, kksfoods47@gmail.com

방탄소년단, 성적으로 보인 'Answer'

(서울=뉴스1스타) 황미현 기
자 = 그룹 방탄소년단이 리패
키지 앨범임에도 무서운 화력
을 보이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앨범명 'LOVE YOURSELF
結 Answer'처럼 이들은 자신들
의 음악으로 세계적 명성에 대
한 '답'을 주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8월 24일
발표한 새 앨범 'LOVE
YOURSELF 結 Answer'로 돌
풍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신곡
'IDOL'에는 니키미나즈가 피
쳐링으로 참여해 그 화력을 더
욱 키웠다.

'LOVE YOURSELF 結
Answer'는 2년 반 동안 이어진
LOVE YOURSELF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하는 앨범으로, 수
많은 모습의 자아 속에서 나를
찾는 유일한 해답은 결국 '나' 자
신에게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제 이들이 쓴 기록은 국내
아이돌 그룹과는 전혀 다른 카
테고리로 분류되고 있는 모양



새다.
방탄소년단은 앨범 발매와
동시에 국내 차트를 올킬하더
니 곧장 세계 차트에도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무엇보다 세계적 팝 시장의
척도인 미국 빌보드에서의 활
약은 계속 이어졌다. 지난 2일(
현지시간) 미국 빌보드의 앨범
메인차트인 '빌보드200'에서
'LOVE YOURSELF 結 An-

swer'는 당당히 1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 앨범 'LOVE
YOURSELF 轉 Tear'이후 두
번째 정상 기록으로, K팝 최초
로 2회 연속 1위를 차지하는 기
쁨을 누렸다.

앨범 차트와 더불어 스트리
밍을 기반으로 한 빌보드 '핫
100' 차트에도 11위로 진입했다.
방탄소년단의 '핫100' 최고 진입
수치는 지난 6월 곡 'FAKE

LOVE'의 10위 기록이다. 이 수
치는 K팝 중 가장 높은 진입 기
록이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에도 타이틀 곡 'IDOL'로 11위
를 차지하며 두번째로 높은 진
입 기록을 세웠다. 이로써 방탄
소년단은 빌보드 '핫100'의 최상
위 진입 기록 1,2위를 동시에 보
유하게 됐다.

galaxy98@news1.kr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유퀴즈' 조세호, 첫 번째 퀴즈에서 '조세호 찬스' 쓴 시민에 당황 "몰라요"

(서울=뉴스1스타) 윤정미 기자
= 5일 tvN '유퀴즈온더블럭' 예선
유재석과 조세호가 시민들을 만나
퀴즈를 풀어보는 모습이 방송됐다.

이날 퀴즈에 도전한 한 시민은
신조어를 맞춰야 하는 첫 번째 문제
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댕댕이'
란 말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냐는
질문.

이에 시민은 첫 번째 문제에서
'조세호 찬스' 를 썼다. 이에 조세

호는 화들짝 놀라며 어쩔 줄 몰라하
는 모습을 보였다. 조세호는 "저
몰라요, 어떡해요" 라고 말하며 진
땀을 흘렸다.

결국 조세호는 땀방이가 강아지
를 연상시킨다고 자신의 생각을 말
했고 시민은 그의 말을 따라 정답을
맞히는 모습을 보였다. 다행히 정답
을 맞힌 상황에 조세호는 가슴을 쓸
어내렸다.

galaxy98@news1.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슬픔을 견디는 방식(7)

‘난 까마귀 같은 사람이죠’ 까마귀는 분명 그 남자일 것이다. 방 안에는 몇 벌의 옷이 있고 작은 상자 안에 남자의 팬티가 있다. 아마도 빨랫감을 놓아두는 상자인 모양이다. 남자의 팬티를 보는 순간 은미는 가슴이 미어지도록 자기혐오가 꾸역꾸역 차올랐다. 궁상맞은 삶을 털어내려고 엄마 돌아가신 이후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던가. 한데 이 남자는 이 시대에 저 팬티 같은 존재 아닌가.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는 그러나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저 팬티. 은미는 팬티처럼 벗겨져서 빨랫감으로 던져질 수도 있는 남자가 처음으로 현실로 느껴졌다. 남자를 은미의 현실 속으로 들여놓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은미는 조직도를 가방에 넣고 나오려다가 돌아서서 책꽂이를 바라보았다. 가장 위험해 보이는 책 몇 권을 빼서 가방에 넣었다. 안국동 개미굴 집을 빠져나오는 동안 심장이 터져 나가는 듯했다. 모든 남자들이 형사들로 보였다. 남자의 물건을 내밀며 은미는 단호하게 말한다.

“다시는 이런 일 나에게 시킬 수 없어. 난 더 이상 이 찻집에 안 올 거야.”

보름이나 지났을까. 은미는 알 수 없이 앓았다. 온몸에 뜨겁게 열이 차올랐다. 견딜 수 없이 남자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마음을 확인한 것이다.

고작 몇 달 만났는데 겨우 손만 잡았는데 남자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는 자신을 향해 끝까지 말라고 중얼거리며 다녔다. 출근도 겨우 했고 일 처리 능력은 급격히 떨어졌다. 회사 내에서 활기찬 걸음걸이로 유명한 은미는 병든 병아리처럼 걸음걸이가 느려졌다. 또한 그 남자를 생각하면 몸의 기운이 아래로 쏠리는 현상도 있었다. 한 번도 섹스를 해보지 않았다. 그 남자가 그리운 것이지 그 남자와 섹스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몸은 말을 듣지 않는다. 그가 그리운 만큼 은미의 아래도 뜨거워졌다. 처음 겪는 이런 현상을 거부하느라 한 달 사이 5킬로 그램이 빠졌다. 보는 사람마다 아프냐고 묻는다. 비가 오던 어느 날이었다. 아침부터 폭우가 쏟아져서 퇴근 시간 무렵 몇몇의 직원들은 약속을 취소하는 전화를 하고 있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우산 색깔이 참 예쁘게 무리 지어 걷는다. 어둑어둑한 저녁 가로등 불빛 속으로 빗물들이 사정없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가끔 비가 와도 부나방 들은 제 날개를 불빛 속에서 더욱 빛내며 미친 듯 가로등 주위를 맴돈다.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억수로 오더니 가로등 주위가 조용하다. 은미는 그렇게 오래도록 서 있었다. ‘그 남자를 사랑하면 내 인생은 끝장이다’ 라고 아무리 스스로

를 설득해도 몸과 마음은 거의 통제가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인가? 내가? 한 번도 연애를 해 보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인가? 너무 외롭기 때문일까? 오래도록 사람의 온기를 느끼지 못했지만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다. 목표가 있었으니까. 제대로 된 자기 위치를 갖는 것이 이토록 절박한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모의 보호 아래 죽어 되든 밥이 되든 삶을 꾸리는 자들은 절대 알 수가 없다. 정상적인 구성원이 되어 안전한 가정을 갖는 것, 이 목표에 비상이 켜진 것이다. 남자를 사랑하고 함께 결혼을 한 후의 미래를 생각하면 은미의 희망인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른다. 은미는 결심한다. 이 남자를 사랑하겠다. 그러나 결혼은 하지 않겠다. 은미가 비웃을 입고 우산을 들고 천천히 걸어 나간다. 남자와 만나던 찻집은 이곳에서 십여 분 걸어야 한다. 길 위로 흐르는 빗물이 발을 적시고 종아리를 적신다. 내리는 비는 허벅지와 엉덩이를 적신다. 바람이 불면 더 많이 젖는다. 아무리 비가 와도 젖지 않는 몸의 한 부분은 우산을 든 오른손 주위. 심장 그리고 얼굴이다. 찻집으로 걸어가며 심장을 꺼내 빗물에 식히고 싶었다. 심장은 뜨겁게 폭주하듯 뛰었다. 천천히 걷는 것 만이 마음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거리에는 사람도 별

로 없다. 이런 폭우 속에서 천천히 걷는다. 그때 지하철 환풍기가 있는 곳에 비를 철철 맞으며 한 여자가 노래를 늘어지게 부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비를 피해 건물 처마 밑에 있던 사람들은 그 여자의 노래를 듣는다. 청승이 하늘을 울리는지 땅을 울리는지 이 비는 저 여자의 노래와 너무 어울린다. 은미는 그 여자 옆에 앉아 함께 노래를 부르고 싶었다. 그 여자의 처량함에 얽혀 마구 청승을 떨고 싶었다.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허스키한 목소리의 임희숙이 불렀던 저 노래를 스물둘 정도 되어 보이는 앳된 여자아이가 청아하게 부른다. 청아하게 부르니 더 슬프다. 한 달하고도 보름 만에 찻집 문을 연다. 이미 온몸이 젖었다.

유희주 작가는 1963년에 태어나 2000년 『시인정신』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2007년 미주 중앙신문 문학상 평론 부문을 수상했다.

2015년 『인간과 문학』에 소설 『박하사탕』을 발표하며 소설 작품 활동도 시작했다. 시집으로 『떨어져나간 것들이 나를 살린다』 『엄마의 연애』, 산문집으로 『기억이 풍기는 봄밤 (푸른사상)』이 있다.

유희주 작가는 매사추세츠 한인 도서관 관장, 민간 한국 문화원장, 레몬스터 한국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코리아넷닷컴(koreanlit.com)을 운영하고 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티보가 대리점주를 모집합니다!

동부 및 서부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의 티보 대리점을 모집

-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
- 초기 자본 없이 창업 가능
- 전화 한대면 남는 시간을 이용해 창업 가능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신영의 **세상 스케치**

661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작은 실천

무슨 일이든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 더욱 어렵다는 생각이다. 큰 것은 큰 일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작하니 결과로 향하기 쉽지만, 작은 것은 생각에서 머물다가 실천까지 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 몇 년 전부터 늘 생각에 담고 있는 있으면서 작심삼일이란 말처럼 며칠 혼자 실행에 옮기다 만 일이 여러 차례 있었으니 말이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 편안하게 구입해서 먹는 음식들의 포장도 그렇다.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산을 오를 때 그리고 들과 바닷가에 갈 때는 편리한 것이 좋으니 작은 초콜릿 하나라도 개별 포장이 된 것을 고르는 것이다.

언제인가부터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내 '삶의 철학'이 되었다. 그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지면서부터 남의 것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이 이룬 업적에 대해 칭찬과 박수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내 자식의 자랑 아닌 자랑도 하게 된다. 그렇게 내 자식이 귀한 것처럼 다른 자녀들의 칭찬이 진정한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것이다. 가끔

자기 자식 자랑만 늘어놓고 남 자녀의 칭찬에는 인색한 이들도 가끔 만나게 된다. 마음의 여유가 없는 이유일 것이다.

내 것이 귀하면 남의 것도 귀하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소소한 일상은, 삶은, 인생은 그만큼 여유롭고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남에게 큰 것을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듯 작은 마음 하나 나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다면 서로에게 유익하고 넉넉한 삶이지 않겠는가 말이다. 상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의 따뜻한 칭찬 한마디가 희망이 되어 가슴이 뛰고 그 열정이 글과 사진을 하는 작업에 큰 모티브가 되지 않았던가.

무엇이든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소용이 없다.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져 실천되었을 때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 작은 실천이 에너지의 원동력이 되어 앞으로 옆으로 높이 멀리 동심원을 그리게 되고 그 원심력이 파장을 일으켜 큰 힘이 되는 것이란 생각을 한다. 이처럼 삶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따

뜻한 한마디의 칭찬의 시작이면 좋겠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보호는 누가 아닌 내가 먼저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사실, 지난봄 한국을 방문하며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한 탁한 공기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보통 한국은 가을에 방문했었기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었다.

지구온난화는 어떤 지역에는 폭우를, 또 어떤 지역에는 극심한 가뭄을 가져오는 등 예측할 수 없는 기상 이변을 가져온다. 지구의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재해 중 대표적인 예로 열대성 저기압의 강화를 들 수 있다. 2004년 일본은 한 해 동안 10회의 태풍이 지나가는 신기록을 세웠다. 미국의 플로리다 만에서 형성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따뜻한 멕시코 만류 위를 통과하면서 세력이 점점 강해졌고,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줬다. 또, 2005년 7월 인도 뭍바이에서는 하루 동안 1,000 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기록을 남겼고 중국 또한 심한 홍수를 겪었다.

북극이 급격히 뜨거워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지구 상공에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분포돼있는지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가 지구에 골고루 분포돼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분포된 지역과 적게 분포된 지역이 있다는 것이다. 즉 산업화가 급격히 발달한 지역, 인구가 많은 지역, 화석 연료 사용이 많은 지역인 유럽, 북미, 동아시아 지역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 결과를 보고도 지구온난화가 인간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원인은 결국 인간 활동이 주요원인이라는 것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점점 가속도를 내며 우리의 일상과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올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겠는가. 이제 더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일임을 알기에 이를 우리가 모두 함께 책임을 져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어느 환경단체의 목소리와 실천만으로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까닭이다. 누구를 위함이 아닌 내가 살고 내가족이 사는 생존의 문제가 걸렸다고 생각해야 할 때인 것이다. 그런 사고를 갖고 생활에서 실천하는 삶만이 함께 살 수 있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한담객설閑談客說: 고무신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태평양을 건너오기도 했다. 고무신은 참 편하기도 한 신발이었기 때문이다.

시드는 낫달처럼
스러져 얽어질 사람,
오늘같이 푸른 날은 흰 고무신 닦아 신고
뽕복새 우는 긴 논둑 길 걸어 보고 싶네
(김화옥, 자화상 중에서)

며칠 전이다. 교회분들과 이야기 끝에 고무신 이야기가 나왔다. 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어릴적엔 나도 고무신을 신었다. 게다가 흰색 고무신이였다. 냇가 모래밭에서 벗어 갖고 놀던 그 신발이다. 고무신은 쉽게 신고 벗을 수있었다. 게다가 쉽게 닦을 수있었고 쉽게 말랐다. 내 고무신 밑창에는 한반도 그림이 있었

다. 토끼 모습이라고도 했다. 누군 한반도는 호랑이 형상이라고 하더니만.

이번 인도네시아 아시안 게임에서도 한반도기를 들고 남북 팀이 동시입장했다 던가. 그런데 한국팀은 왜 한반도에 국한해야 하는 걸까? 학교에선 만주는 고구려 땅이었다 했거늘, 게다가 요동반도를 거점으로 황해를 내해로 여겼다고 했는데 말이다. 만주땅에서는 고무가 자라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부터였다. 신발은 넉넉해야 발이 편하다는 걸 알았다. 한반도가 좁다. 만주까지 신발문수를 넓혀야겠다. 발이 편해야겠다.

= 아시안 게임에선 한국이 선전했는가? 한반도를 고무신 안에서 꺼내게 옛날이다.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더라 (요한 1:27)

세상은 빠르게 변화한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자동차 바퀴가 그러하다. 여전히 검은색이고, 고무로 만든다. 합성고무인지, 천연고무인지 그건 모르겠다. 한국에서도 고무를 수입해 쓸 것이다. 주수입원은 인도네시아라고 들었다. 인도네시아라면 자원이 풍부하다 하던데, 고무생산과 수출이 상당하다고 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렸다.

한국군대에서다. 군화가 지급되었다. 워커라고도 했고 전투화라고도 했다. 지급되는 군화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았다. 발이 까지기

십상이었던 거다. 삭족적리削足適履 되었는데, 발을 군화에 맞춰야 했던 거다.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는 말도 들었다. 두고온 애인이 변심했다는 말이였다. 군화와 고무신은 묘하게 짝을 이룬다. 한편, 한국군대에서 실내화로 고무신도 지급되었다. 쉽게 벗고 신을수 있는 실용성 덕분이었다.

어머니의 흰고무신은 언제나 말갈게 잘 닦여있었다. 신발코에서는 빛이 반짝 나는듯 싶기도 했던 거다. 땀돌위에 얹혀있는 흰고무신을 보면, 깔끔하고 정갈한 인상이었다. 하긴, 오래전 유학생들은 고무신을 짐보따리에 넣고

2018 년 하반기 최대 기대작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위대한 승리!

최정예 50 만 대군을 막아선
 88 일간의 결사항전

초대형 전쟁 서사 블록버스터

THE GREAT BATTLE **인수성**

조인성 박성웅 남주혁 김설현 김광식 감독
Next Entertainment World presents WILL DO USA ENTERTAINMENT distribution

09 월 21 일 대개봉

BOSTON : AMC Loews Boston Common 19

175 Tremont St, Boston, MA 02111 / 617.423.5801

상영권 정보 및 티켓 예매 TheGreatBattle-Movie.com

 Facebook.com/HitKMovie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권 경품 이벤트

facebook.com/HitKmovie 혹은 instagram.com/HitKmovie 에서 <인수성> 관람 티켓 인증하고

American Airlines



항공권 경품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기간 9/21-10/14]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440) 은퇴 후회

금융기관(TIAA-CREF Ready to Retire Survey)에서 은퇴예정자와 이미 은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정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무엇인지 광범위하게 조사한 후 발표했습니다.

* 은퇴투자를 일찍 시작하지 않은 것을 후회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시작합니다. 나이가 25일 때 은퇴준비란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주말에 있는 파티가 우선입니다. 젊은 시절을 보내고 결혼하면 집 장만, 아이들 학비, 등으로 은퇴투자를 또 하지 못합니다.

25살에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봅니다. 일 년 봉급은 \$40,000이고 매년 봉급이 2%씩 올라갈 때 봉급의 10%를 투자하면 65살 은퇴자금이 \$830,000으로 불어납니다. 이것은 매년 수익률을 단 6%로 가정했을 경우입니다. 지난 90년 동안 주식시장은 실제로 10%씩 상승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5년 동안 열심히 파티를 즐긴 후 30살부터 저축하면 같은 조건에서 65살에 은퇴자금이 \$645,000으로 무려 \$185,000이 적어집니다. 같은 조건에 35살부터 저축하면 65살 때 \$492,000으로 10년 늦게 시작한 잘못으로 은퇴자금이 40% 감소합니다. 은퇴투자를 일찍 시작해야 적은 돈으로 노후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 은퇴투자를 더 많이 하지 않은 것을 후회
대부분 직장인은 봉급에 맞추어서 생활합니다. 주택용자금, 자동차, 학자금, 등으로 돈이 빠져나가면 노후대책으로 투자할 돈이 남지 않습니다. 항상 빠듯한 생활이기에 노후대책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됩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퇴투자를 25살에 10%에서 2%를 더한다면 65살에 100만 불이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회사에서 매칭(Matching)으로 3%를 더 증가하여 15%를 저축한다면 65살 은퇴자금이 120만 불로 증가합니다. \$40,000의

15%는 \$6,000입니다. 처음 몇 년간 \$6,000 투자로는 목돈을 만들 수 없을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서 큰 은퇴자금으로 모입니다. 장기투자도 복리효과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은퇴투자를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하지 않은 것을 후회

젊은 나이에 투자를 은행, CD, 등에 투자했다면 장기간 투자해도 돈이 불어나지 않습니다. 25살 직장인이 봉급의 15%를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수익률 6%와 7%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6% 저축은 120만 불이고 7% 수익률은 160만 불이 됩니다. 수익률 단 1% 차이는 돈으로 \$400,000의 차이입니다. 수익률 1%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수익률은 그만큼 높은 투자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과 2009년 3월 사이에 주식투자는 57%가 하락했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분명 투자 위험성이 있습니다. 단기에는 주식시장의

오름과 내림의 폭이 크지만, 장기간으로 보면 꾸준히 올라갑니다. 투자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 위험성을 더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가 가깝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에겐 투자 폭락이 치명적으로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투자하며 투자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투자경비입니다. 수익률 1% 더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비로 나가는 돈 1% 적어지면 그만큼 수익률이 올라간 것과 같습니다. 어뉴어티의 수수료는 6%~10%, 로우드(Load) 뮤추얼 펀드는 8.5%, 부동산 투자(Non-Trade REITs)는 10%, 그리고 생명보험(Variable Universal Life Insurance)은 120%까지도 부과되지만, 일반 투자자는 파는 사람의 무지개와 같은 말만 듣고 투자합니다.

은퇴한 후 살아야 할 날들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은퇴 생활을 위해서 부지런히 노후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42 화랑세기花郎世紀, 9세 풍월주風月主 비보랑秘寶郎(3)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화랑세기 필사본에 비보랑의 정처와 계처 그리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 또한 첩유지를 얻게된 이야기와 그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자세하게 나온다.

[공은 노리부의 딸 세진낭주를 아내로 맞아 아들 세호랑을 낳았고 딸 세미와 세신을 낳았는데, 세진낭주는 병으로 죽었다. 다시 진흥대왕의 딸 덕명공주를 아내로 맞았다. 덕명공주의 어머니는 곧 가야국 월화공주이다. 다섯 아들과 세 딸을 낳았는데 아들은 봉부, 보부, 석부, 보주, 진주이고 딸은 흥주, 녹주, 명주였고, 서자는 유오랑, 유매, 가가, 수동 등으로 모두 귀하게 영달했고 명성이 있었다.

유오랑은 공의 첩유지의 소생이다. 유지는 검술을 잘했고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며 난도亂徒를 많이 모아 소요를 일으켰다. 조정에서 군사를 모아 잡으려 했으나 이루지 못했다. 공은 열여덟의 나이에 그 굴을 찾아가 생포했다. 아마 유지가 미모에 뜻이 높아, 공의 높은 품모를 보고 스스로 항복했을 것이다. 공은 그 사람들을 가련하게 여겨 모두 풀어 주었다. 유지는 홀로 가지 않고 말하기를 “다만 그대를 쫓아 죽기를 원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하여 살기를 원치 않는다” 했다. 마침내 첩이 되었다. 유오랑은 어머니의 품모

를 갖추어 용모가 맑고 빼어났고...가...가 있었다. 열여덟살의 나이에 지명법사智明法師를 따라 진陳에 들어가...을 구하고 많은 책을 가져 와서 후진 사문들을 가르쳤으니, 그 공 또한 크다. ... 국가가 태평하고 곡식이 익고 백성이 배부르게 되었다. 모두 공이 그... 주주라고 생각을 했다. 미생공이 취임함에 이르러 곧 봄에 가물어 곡식의 씨를 뿌리지 못했다. 진평왕이 반찬의 수를 줄이고 죄수를 풀어 주자 비가 왔다. 사람들이 미생공이 욕심이 많은 때문이라 생각했다.]

미생은 신라 제일의 미색으로 3대왕(진흥왕, 진지왕, 진평왕)에게 색공을 하면서 전주/새주 등으로 왕후에 버금가는 권력을 휘두른 미실의 동생이다. 그도 누이 미실처럼 아름답고 춤을 잘춰서 공주들과 수 많은 유향들까지 흠리면서 백여명의 자식들을 두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조차 다 몰랐다고 한다. 그러나 백성들의 민심은 비가 안와 가물이 들어도 욕심 많은 미생을 탓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생에 대해서는 다음 10세 풍월주 미생랑편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여기서는 삼국사기에 아주 ‘엄똥하고도 생똥맛게’ 앞뒤가 전혀 연결되지 않아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세大世와 구칠仇漆’의 이야기를 펼쳐 보려고 한다. 화랑세기를 읽지 않으면 그들이 누구인지? 별 의미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는 인물과 내용을 저자 김부식은 왜

지면을 할애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그들보다도 훨씬 영향력이 있었던 문노, 그의 아들 금강 또는 화랑세기의 저자 김대문 등 많은 인물들은 고작 몇자나 몇줄에 지나지 않게 등장하는데 비해 대세와 구칠은 많은 분량이 ‘개밥의 도토리’ 처럼 등장한다). 화랑세기와 함께 그들을 따라가 본다.

먼저 삼국사기의 기록, 587년, 진평왕 본기 9년, 본기 9년에 기록된 내용은 이것 밖에 없다. <진평왕 9년 가을 7월에 대세와 구칠 두 사람이 바다로 떠났다. 대세는 내물왕의 7세 손 이찬 동대의 아들로, 자질이 뛰어났고 어려서 부터 세속을 떠날 뜻이 있었다. 승려 담수와 사귀며 놀던 어느 날 말하였다. “이 신라의 산골에 살다가 일생을 마친다면, 못속의 물고기와 새장의 새가 푸른 바다의 넓은 과산림의 너그럽고 한가함을 모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나는 장차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 오월에 이르러 차차로 스승을 찾아 명산에서 도를 물으려 한다. 만약 평범한 인간에서 벗어나 신선을 배울 수 있다면, 텅 비고 넓은 허공 위를 바람을 타고 훨훨 나를 터이니 이것이야말로 천하의 기이한 놀이요, 불만한 광경일 것이다. 그대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는가?” 그러난 담수는 이를 좋아하지 않았다. 대세는 물러나와 다시 뗏목을 구하였는데, 마침 구칠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는 기개가 있고 절조가 뛰어났다. 드디어 그와

함께 남산의 절에 놀러갔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비가 와 나뭇잎이 떨어져 뜰에 고인 물에 떠 있었다. 대세가 구칠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와 함께 서쪽으로 유람할 마음이 있는데, 지금 각자 나뭇잎 하나씩을 집어 그것을 배로 삼아 누구의 것이 먼저 가고 뒤에 가는지를 보자” 조금 후에 대세의 잎이 앞섰으므로 대세가 웃으면서 “내가 먼저 갈까 보다” 고 하니 구칠이 화를 내면서 “나 또한 남자인데 어찌 나만 못 가겠는가?” 하였다. 대세는 구칠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자신의 뜻을 말하였다. 드디어 서로 벗 삼아 남해에서 배를 타고 가버렸는데, 후에 그들이 간 곳을 알 수가 없었다.>

이 기록 앞의 삼국사기는 8년 여름 5월의 기록 “뇌성과벼락이 치고 별이 비오듯 떨어졌다” 그리고 바로 뒤의 기록은 10년 겨울12월의 기록 “상대등 노리부가 죽었으므로 이찬 수을부를 상대등에 임명하였다” 1년에 한번씩 아주 간략하게 기록된 반면에 ‘대세와 구칠’의 이야기는 비교적 길고 상세하다. 하지만 내용의 중요성은 보이지 않고 대세의 신선에 대한 꿈과 허황된 망상 그리고 같이 갈 친구를 구한 것으로 별로 가치가 없는 기록이 똥단지 같이 얼굴을 내밀고 있다. 그런데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설명하지 않았지만 화랑도였던 대세가 신라를 떠난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화랑도 내에서는 대시각변동이 있었다. 화랑세기를 읽어야만 이해가 되는 삼국사기의 기록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고국방문 성형을 고민하시나요? 의료관광 휴람을 이용해보세요!



[예뻐(젊어)지고 싶은 마음 & 잘 될까 하는 불안한 마음]

경험 많은 휴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은 고객님의 사전 견적을 받아 전문 분야에 맞는 수술병원을 추천해드립니다.

이제 상담을 통해 사전 견적을 받고 믿을 수 있는 한국 성형 휴람을 통해 준비해보세요.



전문성이 다른 시너지 성형외과의 풍부한 임상경험!

시너지 성형외과

시너지 성형외과는 약속합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하루 적정 수술 횟수를 제한하여

‘쉐도우다터 & 대리수술을 사전에 차단’ 하고, 과잉 진료를 예방하여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완벽한 수술 결과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1:1 맞춤 상담을 통한 정확한 진단
- 끊임없는 연구와 임상경험을 통한 검증된 수술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상주
-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type 01

안면거상+ 이종턱제거 ~~880만원~~ **660만원**

PRP+ 지방이식 ~~300만원~~ **220만원**

type 02

3D입체분석 가상성형 시스템 ~~550만원~~

가슴성형 **473만원**

※ 보험료, 수술방법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type 03

상안검 ~~187만원~~ **154만원**

하안검 ~~187만원~~ **154만원**



정경인 대표원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대한두개안면학회 정회원



황진 원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대한두개안면학회 정회원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 무료 전화(Call for Free) ★
1-844-DO HURAM (1-844-364-8726)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aram@haram.kr / www.huramkorea.com

보스톤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49-1766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 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mwl@mwleecpa.com 또는 mwlee@kicpa.or.kr

비즈니스 시작하기 (9)

2018사업연도 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개정세법

지난주는 2017년도 개정세법 내용중 '사업소득에 대한 20% 공제'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주는 그 이외의 내용중 개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살펴보자.

1. 세율

법인의 세율은 기존의 누진세율(graduated tax rate ; 최고 35%)에서 21%로 단일화했다. 그러나 개인의 세율은 7단계 누진세율을 유지하면서 대신 전반적으로 구간별 소득금액을 높이고, 세율을 낮추는 방향(최고세율은 39.7%에서 37%)으로 개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였다.

다만, 양도소득(capital gain)에 대한 세율은 기존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인적공제(Exemption) 폐지와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조정

세금계산 절차의 간소화 차원에서,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4,050(2017년 기준)씩 일괄적으로 공제 해주던 인적공제(Exemption)제도를 삭제하고, 대신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이를 상쇄했다.

참고로 2017년도와 2018년도의 표준공제금액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Filing status	2017년도	2018년도
Single	\$ 6,350	\$ 12,000
Married filing Jointly Qualified Widow(or)	\$ 12,700	\$ 24,000
Married filing separately	\$ 6,350	\$ 12,000
Head of Household	\$ 9,350	\$ 18,000

3. 자녀 및 가족세액공제(Child and Family Tax credit)

일정요건을 갖춘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 1인당 일정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tax credit). 그 금액이 \$1,000(2017

년도)에서 \$2,000으로 올랐다. 이 자녀세액공제 \$2,000중 \$1,400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환급가능한 금액(refundable tax credit)이다.

또한 2018년도부터는 자녀가 아닌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500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환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자녀세액공제는 조정된소득금액(AGI : Adjusted Gross Income)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phase-out). 그런데 이 phase-out기준금액이 아래와 같이 대폭 상향조정됐다.

Filing status	Phase-out 시작	Phase-out 종료
Married filing Jointly	\$ 400,000	\$ 440,000
그 외	\$ 200,000	\$ 240,000

위 표를 보면, 부부합산신고자의 경우 AGI가 \$400,000이하면 \$2,000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고, \$440,000을 초과하면 \$2,000전액이 삭감되어 자녀세액공제액은 0이다. 그리고 AGI가 \$400,000에서 \$440,000사이면 \$2,000에서 일정액이 삭감되어 일부만 받을 수 있다.

4.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규정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적 비용(personal expenses)은 세금계산시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의료비, 모기지 이자 등 일부 개인적 비용은 특별히 공제를 해주는데, 이를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라 한다. 이러한 항목별공제는 위에서 살펴본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연관성이 있는데, 항목별공제금액이 표준공제금액보다 작으면 표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항목별공제 규정은 그 금액이 표준공제액 금액보다 큰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

1) 주정부세금(SALT-State and Local Taxes)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금(주정부소득세, 재산세 등)은 연방정부 세금계산할 때 항목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2018년도 부터는 그 금액이 \$10,000로 제한된다. 따라서 고액의 주정부 소득세나 재산세를 내고 있는 납세자는 일부금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2) 모기지이자(mortgage interest)

2018년 이후 구입한 주택에 대한 모기지이자(home acquisition indebtedness)에 대해서만 항목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100,000까지 금액의 이자에 대해 공제받았던 home equity indebtedness는 2018년 부터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3) 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

기부금한도금액이 AGI의 50%(현금의 경우 60%)로 상향 조정되었다.

4) 의료비(medical expenses)

2017년도는 의료비지출액이 AGI의 10%(1952년 이전 출생자는 7.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항목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18년 지출액부터는 기준금액을 AGI의 7.5%로 낮춰 공제대상 의료비 금액을 높였다.

5) Casualty and Theft loss/ Job expenses and Miscellaneous deduction

개인적인 재해손실이나 도난으로 인한 손실은 2018년도부터 더 이상 항목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기존에 AGI의 2%초과 금액에 대해 항목별공제를 받던 직장관련 비용이나 기타 비용도 2018년부터는 항목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5. 이사비용(moving expe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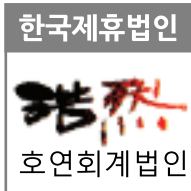
2017년도까지는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일정요건(거리요건과 근무요건)을 갖추면 이사비용을 세금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도부터는 이사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다.

6. Section 529 Plan

2018년도부터는 Section 529 plan에서 \$10,000한도내에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비(qualified expenses- 등록금, 교과서, 그리고 컴퓨터 등 필수적인 교육교재비 등을 포함)로 사용할 수 있다.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전상품 무약정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VIP 상품
방송 3사 / 종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99

티보 대리점 모집

동부 및 서부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의 티보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소식 (2018년 9월 7일)

● 급행신청 (Premium Processing)

최근 언론을 통해 발표된 대로 H-1B 신청에 대한 급행신청이 한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이번 중단은 내년 2월 19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쿼타(quota)에 해당되지 않는 H-1B 신청과 Nebraska Service Center로 보내지는 category에 해당되는 신청자들은 계속해서 급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10월1일 (2018년)부터 급행신청에 대한 신청료가 인상됩니다. 기존의 \$1,225에서 \$1,410으로 약 19% 정도 인상됩니다. H-1B를 제외한 Form I-12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와 취업이민 신청은 중단 없이 계속 급행신청이 가능하며 10월1일 이후의 급행 신청에서는 반드시 인상된 신청료를 내셔야 합니다.

● 새로 바뀐 추가자료 요청 기준 (New Guidance on Issuing RFEs and NOIDs)

지난 7월 이미 신청된 이민 관련 케이스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기준이 개정됐고 이는 9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의 기준은 어떠한 신청서를 서류 미비 또는 자격조건 미비의 이유로 거부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요청하게 돼 있었습니다. 단, 심사관 재량으로 추가

자료를 요청해도 신청인이 이를 보낼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될 때만 추가자료 요청 없이 신청서를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새 기준은 심사관에 완전한 재량권 (Full Discretion) 을 줍니다. 따라서, 단순한 실수나 한두 가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추가자료 요청 없이 신청서를 기각해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가 없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교묘한 반이민 정책이 또 실행될 예정입니다. 어렵겠지만, 해결책은 신청서 제출 전 자금보다 더 신중히 신청서와 자료에 대한 검토밖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 최근 추방 경향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추방정책으로 계속해서 이민 집행국 (ICE) 의 서류 미비자 체포와 추방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등에서 집중적인 단속과 체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아이다호, 몬타나,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같은 주에서는 단 1-2건 정도의 단속만이 이뤄졌으며 보스턴 인근인 버몬트주에서는 3건, 메인 주에서는 0건의 체포만 이뤄졌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불법 노동이나 체류 기간 초과가 체포의 주된 사유였지만 최근에는 투표한 자들에 대한 체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투표는 미국 시민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연방 또는 주 선거가 아닌 지방 (town) 선거에 영주권자 또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거주자 자격으로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연방 이민법 위반으로 의도적이든 실수든 불법으로 시민권자임을 자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행정기관의 실수로 투표 등록 신청서 (Register to Vote) 가 거주지로 배달되는 경우입니다. 최근 위와 같은 이유로 추방된 사람들 중 대부분이 이러한 신청서가 본인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투표권이 있다고 착각하고 투표한 경우였습니다. 또한, 투표 등록 신청서에는 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민권자에게만 해당되며 실수로 보낸 신청서는 차후에 어떠한 정상참작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시민권이 없으신 분들은 투표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 신분변경 신청

신분변경 신청서에 대한 적체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동부 거주자들의 신분변경 신청서의 관할권을 가진 버몬트 서비스센터의 신분변경 신청서들 중 일부가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로 이전됐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조치로 최근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의 신분변경 심사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심사기간의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생 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의 경우 다른 신분변경 신청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 지금과 같이 심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이전 신분이 이미 만료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물론, 이전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만 신분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최근 이를 문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학사일정도 잘 조정하셔야 합니다. 모든 자격조건에 이상이 없어도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신청으로 인해 학사일정과 맞지 않을 경우 신청서에 대한 거부를 합니다. 따라서, 학생 신분으로의 신분변경 신청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시고 신청하시길 당부드립니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꼭 알아야 하는 대처방법

미국에서 살다 보면 자동차 없이 생활하기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차량 보유율이 인구 1000명당 837대나 된다고 하니, 과연 '자동차 왕국' 이라는 별명이 잘 어울려 보입니다. 하지만 양달이 있으면 응달이 있듯이, 자동차 보유 수가 많은 만큼 자동차 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만 매년 대한민국 인구에 맞먹는 5천만 명의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 중 대략 130만 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하니 놀라운 수치입니다.

교통사고의 최고의 예방책은 누가 뭐라 해도 안전운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 속수무책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허둥지둥하다가 불필요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교통사고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꼭 알아야 하는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명심할 점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기는 쉽지 않겠지만, 전화를 걸 수 있는 상황이라면 911에 전화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동승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사고 경위를 경찰관에게 정확하게 보고해 달라고 요

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상 정도가 심하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사고 난 차량에 대한 대처가 두 번째입니다. 만약 사고 차량이 특별히 교통 체증을 일으키지 않거나, 운전자에게 직접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면, 차량을 사고 난 그 상태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명심할 부분은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의 소통 방식입니다. 상대방 운전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은 최대한 삼가시는 것이 좋고, 경찰이 사고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차량 내에서 기다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는 평상시 운전을 할 때도 꼭 기억하셔야 하는 팁입니다. 바로 운전 시에 차량등록증, 보험 카드 정보, 운전 면허증을 차 안에 두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본인의 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차량등록증과 보험카드를 전달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해 티켓이 발행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에 더해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면 1년간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자신의 운전보험입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유효하며, 지금까지 보험비를 꾸준히 지급하고 계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차량의 lia-

bility 커버리지는 \$100,000 정도가 있는 것이 좋으며, 과실을 범한 상대방 운전자가 무보험일 경우를 대비하여 무보험 커버리지 또한 같은 금액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더불어 PIP (Personal Injury Protection) 혜택이 \$250,000 이하인 보험 가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고 후 검사 및 주사치료, 혹은 수술이 필요하게 될 경우 치료 비용이 인상될 수 있으며, 보험 커버리지는 곧 치료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량을 최근에 구매하셨다면, 만일의 충돌 사고를 대비하여 Collision and Comprehensive 보험을 구입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차량을 리스한 경우라면 Gap Insurance를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Gap Insurance는 사고로 인해 차량이 폐차될 위기에 처할 경우 본인이 리스 회사 측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차의 실제 가치액 간의 수천 달러에 이를 수 있는 차액을 커버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찰이 현장에 왔을 때 취하셔야 할 방안입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 사건의 경위와 고통을 느끼는 부위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극심하다면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도록 하시고, 그렇게 심각하다고 느끼지는 않으나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방문

하시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도록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고,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를 받으시고 그 정보를 본인이 가지고 계시거나 경찰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손상된 차량의 사진은 현장에서 바로 찍으시는 것이 좋으며, 멀리서 한 번, 그리고 가까이에서도 한 번 찍으시면 됩니다.

사건 보고서 (Police Report)를 받으시자마자, 보험사 측에 연락을 취하여 가능한 빨리 클레임을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측과 협조해야 하기는 하나, 보험사 담당자 및 상대방 보험사의 조사관에게 직접적인 진술을 하는 것은 삼가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사고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거기에 부상까지 생겼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사고상해 보상 청구 전반에 있어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본 칼럼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알고 싶은 법률 내용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고객이 신뢰하는

법률 브랜드

기업 고객

국제법 | 금융법 | 노동 및 고용법 | 보험회사 관련 소송
부동산 | 상법 및 M&A | 소송 | 이민법
임대임 . 임차인 관계법 | 지적 재산법 | 프랜차이즈법

개인 고객

가정법 | 노동 및 고용법 | 부동산 | 사고 상해 | 상법
세금 . 상속 . 유언 | 소송 | 이민법 | 임대인 . 임차인 관계법
지적 재산권 | 티켓 . 지역 법원 관련 업무 | 파산 | 형법

songlawfirm.com

SONGLAWFIRM

Boston Office . 385 Concord Ave. Ste 002, Belmont, MA 02478 | T 617.489.1327

HQ .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 T 201.461.0031

mail@songlawfirm.com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GEORG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JERSEY | NEW YORK | PENNSYLVANIA | TEXAS | KOREA | CHINA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런드로맷, 서머빌/매드포드지역, 연매상 230,000+, 사이즈 2000sq+
머니메이킹, 아파트 주거지역,

세탁소 풀 플랜트, 워터타운/월담지역, 연매상 185,000+ 좋은 지역

Reflexology(리플렉솔로지:손발건강 관리), 연매상 \$700,000, 연 순수익 \$250,000
아주 변화한 좋은 장소

보스톤 남쪽 세탁소 풀 플랜트+드롭스토어(4개)+부동산 포함, 총연매상 \$1M+
매매가격 \$2.5M, 드롭스토어 각각 매매 가능 연매상 \$193,000 - \$280,000
드롭스토어는 100% 고용인이 경영, 부동산-상가건물+단독주택, 주차장(20대)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720,000
드롭스토어 연매상 \$180,000 렌트 \$800/월, 100% 고용인이 경영
총연매상 \$900,000 소유자 은퇴 (30년-건물주인)

보스톤 서쪽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40,000 소유자 은퇴 (25년)

보스톤 북쪽 헤어살롱, 연매상 \$80,000 아주고급동네, 좋은 렌트

보스톤 서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40,000+부동산 매매, 소유자1명+직원4명

보스톤 북서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310,000+ 모든 기계 5년,
노 퍼크기계, 미국 주요 체인점들 다수 입점한 메이저 플라자, 소유자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스토어, 연매상 \$100,000+ 고급동네 좋은 매매가격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드롭오프, 연매상 \$235,000 소유자 1명+직원

보스톤 북쪽 드랍+아웃수선, 연매상 \$100,000 좋은 순수익

Woburn/Winchester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330,000 소유자 은퇴(25년)

보스톤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프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도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200,000+ 소유자 은퇴 아파트 지역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아카데미 프로그램

1. Weekend Program:

SAT 1, SAT II, AP수업

다년간의 경험의 강사진이 실전 문제와 새로운
문제유형에 따른 수업으로 단기간 고득점 완성

2. Tutoring Program:

학업 과목 개인 과외 알짜배기 강사진 보유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등, 학생에 맞는 최적의 강사를 선정

3. Special Program:

경시대회 준비반

수학경시대회(AMC/AIME), 외국어 경시 대회,
과학 올림피아드을 위한 전문 강사진

여름방학 단기4주 집중 프로그램

- 기간: 7/30-8/24/2018(M-F)
- 대상: SSAT program-Jr. High 8th & 9th / SAT1 program-High school 11th & 12th
- 강사진: Heather Morton, Kristin Frank, J.H. Choi
- 수업 자료: College board 포함, 실용 연습 문제 선집
- 참가 비용: 수업료- \$1,800(4 주)/ 재료비-\$100 별도
- 모집 인원: 6명 제한(수강료 납부 시, 등록 확정)

	SSAT	SAT1
09:00-12:00	Verbal, Reading & Math	Reading, Writing & Language, Math
12:00-01:00	Lunch	Lunch
01:00-04:30	SSAT Practice Test(2.5h)	SAT1 Practice Test(3.5h)
04:30-05:30	Note-taking & Study Hall	Note-taking & Study Hall

보스톤 교육원은 명문 사립 중,고등학교 및 대학 진학 지원, 그리고 현지 가디언쉽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교육컨설팅업체로서,
20년 전통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내, 공립학교 재학생들을 위한 주중,말 학원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여름 방학 4주 단기 집중 프로그램에서는 소수 정예의 밀착 관리형 수업이 SSAT와 SAT를 준비하는 중,고등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테스트 가이드라인과 문제 유형 별 선답 요령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전략들이 교육원 소속 전문 강사진들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진다.(필요시, 부모 마음 점심도 별도 신청 가능)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